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etoday.co.kr

제2517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조원태 "구조조정·요금 인상 없다" 2

최태원 '행복얼라이언스'와 100만끼 나눔 9

코스피(18일) 2545.64(+6.49P) ▲ 코스닥 851.74(+12.27P) ▲
환율(달러당 원화) 1103.80(-2.8원) ▼ 금리(국고채 3년물) 0.949%(-0.011%P) ▼

유통공룡 2400명 줄이고 코로나 '고용 빅뱅' 쿠팡 1만4000명 늘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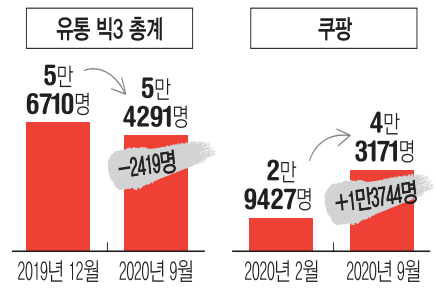
비대면 소비로 오프라인 인력 이탈
롯데쇼핑 폐점으로 1994명 감원
직고용 '쿠팡' 온·오프 왕좌 노려

온·오프라인 유통 권력 이동이 고용 상황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소비 확대로 국내 유통 시장 패러다임이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이커머스 업계가 채용을 늘리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에선 대규모 인력이 이탈했다.

대형마트를 비롯해 슈퍼마켓, H&B(헬스앤뷰티)스토어 등 오프라인 점포 폐점이 잇따르면서 관련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커머스 업체들은 신입·경력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소싱과 판매·배송 물류시스템까지 운영하는 쿠팡은 올해만 1만4000여 명을 직고용해 온라인 '황태자'를 넘어 온·오프라인 '왕좌'를 노리고 있다. 쿠팡은 2~9월 신규 채용 인원이 1만3744명, 직고용 총 인원은 4만3171명이다. 롯데와 신세계·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전통 유통 빅3의 직원 수를 모두 합한 5만4291명보다 1만 명 적은 수준이다.

유통 빅3 및 쿠팡 인력 추이 ※출처: 금감원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신세계·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주요 3개 유통 상장사의 총 직원 수는 지난해 말 5만6710명에서 올해 9월 기준 5만4291명으로 2419명 감소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영화관까지 아우르는 롯데쇼핑이 2만5298명에서 2만3304명으로 1994명 감소해 감원 규모가 가장 컸다. 백화점은 4962명에서 4769명으로 193명 줄었다. 롯데마트 역시 1만2995명에서 1만2317명으로 678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롯데쇼핑이 향후 5년간 오프라인 점포의 30%인 200여 개의 폐점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결과다. 롯데마트는 올 들어 빅마켓 신영통점과 천안아산점, 서현점 등 9개 매장을 닫으며 작년 125개던 점포 수가 9월 말 116개로 줄었다. 롯데마트 폐점에 따라 마트에 입점한 하이마트도 점포 수가 줄었다. 롯데슈퍼 역시 같은 기간 44곳이 사라졌다.

롯데의 인력 감소는 폐점 대상 매장 근무자를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해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거주지와 멀어지는 인력들의 이탈이 잇따른다. ▶12면에 계속 남주현 기자 jooh@

허태수 회장의 승부수 코넬캐피털 펀드 투자

GS 이사회 '바이아웃 펀드' 투자 결의

허태수〈사진〉 GS그룹 회장이 정유, 유통 등 내수 중심의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를 글로벌 무대로 확장하기 위한 투자에 나선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GS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미국의 사모펀드인 코넬캐피털이 새롭게 조성하는 펀드 '코넬캐피털 파트너스 2호(Cornell Capital Partners II LP)'에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투자 규모와 시점 등을 최종 조율하는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GS 관계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투자 조건을 만들어 둔 것"이라며 "㈜GS와 GS퓨처스(GS그룹 벤처캐피털) 중 어느 곳이 투자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사회 부의 기준이 출자의 경우 '투자 금액이 자본금의 5% 이상이거나 500억 원 이상'인 만큼 펀드 출자 시 이 이상의 금액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넬캐피털 파트너스 2호는 코넬캐피털이 두 번째로 조성하는 바이아웃 펀드(Buyout fund)로, 현재 투자자를 모집하는 중이다. 투자 규모는 15억 달러(1조 6592억 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아웃 펀드는 기업의 지분 상당 부분을 인수하거나 아예 기업 자체를 인수한 후 구조조정이나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이익을 거두는 펀드다. 재계는 GS의 이번 투자가 단순한 자산 증식을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룹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GS그룹 사령탑에 오른 허 회장은 평소 "기업을 하나의 생물체라고 본다면 기업경영이란 외부 생태계의 변화를 빠르게 인식하고 대응해나가는 과정"이라며 다양한 사업 파트너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회사를 만들 것을 주문해 왔다. 허 회장은 GS홈쇼핑 대표이사 시절 코넬캐피털과 연을 맺은 바 있다. GS홈쇼핑은 2017년 코넬캐피털로부터 월드키친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허 회장의 투자는 내수 산업에 머물던 홈쇼핑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시켰다. 김유진 기자 eugene@

건설산업의 희망을 보았다

'2020 이투데이 스마트 건설대상' 시상식이 18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이투데이 사옥에서 열렸다. 수상자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시명 SH공사 마곡위례사업처장, 오세정 한국주택협회 전무,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이충근 한화건설 상무, 이재영 한국건설산업 연구원장, 노인환 롯데건설 현장소장, 안상태 대우건설 상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 실장, 최원석 금호산업 상무, 윤성원 국토교통부 차관, 김상철 이투데이미디어 대표, 임희석 대림산업 상무, 박형원 해외건설협회 본부장, 이상규 GS건설 상무, 박세광 현대건설 상무, 한경우 HDC현대산업개발 월계센트럴아이파크 소장, 김권수 SK건설 홍보그룹장, 류중수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대표, 조주성 쌍용건설 상무, 고근모 동방성장위원회 본부장. ▶관련기사 17·18·19면 고이란 기자 photoeran@

〈완전 자율주행〉

현대차, 美서 자율주행차 레벨5까지 테스트

합작사 모셔널, 네바다서 레벨4 시험운행 승인…내년 상반기 주행

현대차가 미국에서 자율주행 4·5단계를 동시에 테스트한다.

1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대차와 앱티브의 자율주행 합작사 '모셔널'은 내년 상반기 미국 네바다주에서 레벨4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승인을 받았다.

네바다주가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와 앱티브는 기술적 완성도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다른 주로도 시험운행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험운행 승인은 레벨4 검증에 머물지 않는다. 모셔널은 일반도로에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시험하면서 사유도로(전용 시험장)에선 레벨5의 자율주행 시스템 실효성 검증에 나선다. 사실상 레벨4와 레벨5 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셈이다.

현재 글로벌 경쟁사 중 레벨5 단계에 올라선 제조사는 없다. 구글이 '웨이모'를 앞세워 레벨5 수준의 기술 및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다. 완성차 제조사 중에는 일본 토요타와 혼다, 미국 GM이 내년 상반기 레벨3 자율차 상용화를 공언한 상태다. 현대차 역시 내년부터 부분적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차를 양산한다.

현대차와 앱티브의 조인트벤처 '모셔널'이 미국 네바다주에서 실시하는 무인 자율주행차 테스트 주행에 투입되는 크라이슬러의 미니밴 '퍼시피카'. 사진제공 미디어FCA

현대차가 네바다에서 추진 중인 레벨4는 방대한 영역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자동차의 형상과 기본 구조, 운전자와 동승객의 탑승도 주행 조건에 포함된다. 레벨5는 운전대와 변속 조작부, 가·감속 페달 등이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차다.

모셔널이 내년 무인 자율주행차를 공공도로에서 운행함에 따라 현대차의 기술적 도약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행 중 얻은 데이터와 영상 패턴을 통해 관련 인공지능 기술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칼 라그니마 모셔널 CEO는 SNS에 "공공도로와 사유도로에서 수천 마일에 걸쳐 안전성 등을 테스트할 것"이라며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레벨5) 테스트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코로나 '3차 대유행' 비상

81일 만에 확진자 300명대 진입
전국 동시다발 집단감염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2차 유행이 번졌던 8월 29일 이후 81일 만에 300명을 넘어섰다. ▶관련기사 4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313명 증가한 2만9311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245명, 해외 유입이 68명이다. 이달 초부터 확진자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왔고 발생 지역이 전국에 퍼져 있다는 점에서 8월 유행보다 위험성이 크다. 8월에는 특정 지역과 시설 중심으로 확진자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었다. 기존 감염경로에서 확진자가 추가된 데 더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확인된 집단감염은 서울 도봉구 의류업작업장(15명), 서대문구 요양원(10명), 송파구 지인 여행모임(18명), 수도권 온라인 친목모임(20명), 경기 안산시 수영장(12명), 광주시 피아노교습(11명), 가구업자 모임(11명), 강원 속초시 요양병원(11명), 경남 하동군 중학교(10명) 등 9개 경로에 달한다. 대부분 지표환자의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미확인 감염원을 통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크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아시아나 인수 후 구조조정·요금 인상 없다"

공식 석상서 첫 입장 표명

"사업 확장성 고려 중복인력 활용 아시아나 노조와 상생안 찾을 것 KCGI 등 3자 연합 대응 안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18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구조조정과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한진그룹이 16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이후 조 회장이 공식 석상에 나와 구조조정과 독과점 우려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다.

조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직원을 품고 가족으로 맞이해서 함께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의 인수 발표 이후 양사 5개 노조(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 열린조종사 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는 당일 합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복 인력을 줄이기 위해 회사가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양사의 중복 인력은 관리직을 포함해 800~1000여 명이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현재까지 중복된 인력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하면서도 "노선과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하면 현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해를 풀기 위해 노조와 이른 시일 내에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그는 "우리 노조와 바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시아나 노조와 대화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최대한 빨리 만나서 상생할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배경으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조 회장은 "대한민국 항공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결정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에서 먼저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향을 물어봤을 때 바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여러 차례 만나며 오랜 기간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미재계회의, 故 조양호 회장에 공로패 조원태(왼쪽) 한진그룹 회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2일차'에 참석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으로부터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공로패를 전달받고 있다. 뉴시스

이번 인수 과정에서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 가족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쳤다며 "가족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인수할 수 있었다"며 "가족들과의 갈등은 계속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가격 인상 등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조 회장은 "일각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고객들의 편의를 해치거나 가격 인상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자산을 매각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조 회장은 "지금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또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비판하고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 연합에 대한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대한민국과 미국의 재계 교류를 통한 양국 우호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미재계회의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조양호 회장은 살아생전 적극적으로 양국 경제계 가교 역할을 수행해 두 나라 간 상생발전과 우호증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총회장에서 공로패를 대신 받은 조원태 회장은 "한국과 미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기구인 한미재계회의에서 선친의 공로를 인정해 감사하다"며 "선친이 한미 재계 교류와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신 일들과 정신을 잘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국민 10명 중 6명 "부모 부양, 가족·정부·사회 공동책임"

통계청 '2020 사회조사'

2년 전 48%서 올해 절반 넘겨 60% "결혼 안 해도 동거 가능" 가장 큰 사회 불안은 '신종질병'

부모 부양을 가정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18일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부모의 노후를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견해가 올해 61.6%로 2년 전보다 13.3%포인트(P) 급등했다고 밝혔다. 반면,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견해는 22.0%로 4.7%P 내렸다. 특히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58.8%로 2.2%P 높아졌다. 자녀와 관계, 자기·배우자 부모와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으나, 배우자와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졌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응답은 59.7%로 3.3%P 올랐다. 이는 2012년 이후 매년 상승세다.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도 30.7%로 0.4%P 상승했다. 그나마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51.2%로 3.1%P 올랐다. 여자가 상대적으로 결혼에 부정적이었다.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출처: 통계청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2.5%로 3.4%P 올랐다. 이런 인식이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은 남자가 20.7%, 여자는 20.2%에 머물렀다. 남자의 75.6%, 여자의 76.8%는 아내가 가사를 주도한다고 답했다. 그나마 20대에선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이 남녀 모두에서 40%를 웃돌았다.

국민 3명 중 1명은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신종질병(32.8%)을 꼽았다. 2년 전과 비교해 29.9%P 급등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코로나19 확산이 경제 충격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위험'을 꼽은 비율도 12.8%에서 14.9%로 2.1%P 올랐다. 반면, 범죄와 국가안보, 환경오염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20.6%에서 13.2%로 7.4%P, 18.6%에서 11.3%로 7.3%P, 13.5%에서 6.6%로 6.9%P 하락했다. 응답자의 31.8%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했다. 2년 전보다 11.3%P 상승한 수치다.

건강 측면에선 13세 이상 인구의 50.4%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평가했다. 이 응답은 2년 전보다 1.6%P 올랐다. 생활습관 면에서 아침식사는 줄었으나, 적정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정기건강검진은 실천율은 올랐다. 13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50.5%로 3.9%P 하락했다.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는 받는다는 비율은 각각 14.4%P, 3.8%P 급락했으나,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비율은 0.2%P 올랐다.

한편,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2년 주기로 시행된다. 올해에는 전국 1만9000여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5월 13일부터 16일간 조사가 이뤄졌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2023년까지〉 〈2021년〉

기업 "K바이오 10兆 투자"… 정부 "R&D 1.7兆 지원" 화답

바이오헬스 발전전략 발표

삼바 1.7兆·셀트리온 5000억 투자
성공 이행땐 9300명 고용창출 기대
정부, 예산 30% 증액… 투자효과↑
송도 찾은 文대통령 "큰 공헌에 감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인천 송도 연세대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행사에 참석해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식 후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규석 위아텍 대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문 대통령, 서승환 연세대 총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이용호 정현프랜트 대표. 인천=뉴시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에서 2023년까지 약 1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진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30% 증액하는 등 개별 기업의 투자가 또 다른 투자 성공 사례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헬스 산업 사업화 촉진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 바이오산업은 코로나에 맞서 인류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많은 국가들로부터 진단키트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며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지를 넘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지원자' 역할 충실** = 정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바이오헬스 3대 분야(의약품·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주요 36개사와 벤처캐피털 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은 2023년까지 총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분야별로 의약품이 8조4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벤처투자(1조4000억 원), 의료기기(5000억 원), 헬스케어(1800억 원) 순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의약품 23.9%, 의료기기 10%, 벤처투자 9.2%, 헬스케어 41.7%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투자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한다면 2023년까지 생산은 연평균 약 20% 늘고 9300명 규모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우선 내년도 바이오헬스 분야 R&D 예산을 올해보다 30% 증가한 1조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범부처 협력 연구에 올해(290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64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바이오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해 2024년부터 개발·공정 인력을 연간 2000명 양성한다.

원부자재와 소형 장비 국산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의약품 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하고 AI, 3D 조직칩 등을 이용해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기업의 개발 리스크도 완화한다.

◇ **삼바·셀트리온 대규모 투자** =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와 셀트리온은 바이오 산업 강국 도약을 위한 묵직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삼바는 이날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에서 제4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제4공장은 2022년 부분 생산, 2023년 전체 가동을 목표로 건설된다. 생산량은 25만6000리터로 현재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생산시설인 제3공장(18만 리터)의 기록을 넘어선다.

공장 건설에는 총 1조7400억 원이 투입된다. 제2바이오캠퍼스 부지 확보까지 진행하면 전체 투자비는 2조 원을 넘어선다. 제4공장 건설로 임직원 1850여 명이 신규 채용되며, 별도로 건설인력 6400여 명이 고용된다. 생산유발 효과는 약 5조7000억 원, 고용창출 효과는 약 2만7000명에 이른다.

셀트리온은 인천 송도신도시 내 부지에 기공 발파를 시작으로 제3공장 및 글로벌 생명공학연구센터 건립을 본격화했다.

셀트리온 제3공장은 기존 2공장 부지 내 4700㎡(약 1500평)에 4층 규모로, 연구센터는 2공장 인근 1만33㎡(약 3000평)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총 5000억 원을 투입한다. 3공장은 2023년 5월, 연구센터는 2022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세웠다.

셀트리온은 3공장 및 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신규 고용 창출을 3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대규모 투자, 신규 고용으로 바이오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whan@
노승길 기자 noga813@·유혜은 기자 euna@

탄탄한 인프라로 해외 수주 잇달아
K바이오, 세계 백신 생산기지 부상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K바이오'가 거둬들일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탄생이 가시화함에 따라 글로벌 '백신 개발전'은 '백신 생산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모더나 백신의 생산을 맡은 스위스 제약사 론자는 매년 4억 도즈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론자 외에도 미국, 스페인 기업과 CMO 계약을 맺었다. 내년 말까지 10억 도즈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기업들과 CMO 계약을 체결한 화이자는 13억 도즈,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는 각각 연간 20억 도즈를 생산할 계획을 세웠다. 단시간에 막대한 물량의 생산이 요구되면서, 백신 CMO 사업은 글로벌 바이오업계를 재편할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구축한 생산설비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생산기지로 떠올랐다.

국내 대표 백신 기업 GC녹십자는 국제민간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CEPI)이 지원하는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5억 도즈를 생산하게 된다. GC녹십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충북 오창공장을 증설해 원료의약품 제조 후 충진·포장 공정(Fill&Finish) 설비를 마련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해당 공정의 생산능력은 10억 도즈에 달하며, 이 가운데 7억 도즈 규모가 여유 능력이다.

GC녹십자 관계자는 "10억 도즈는 일일 8시간 생산 시 가능한 물량"이라며 "2교대, 3교대로 확장할 경우 생산능력 역시 늘어난다"고 했다. 추가 수주 역량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 코로나19 백신 CMO 수주 현황

기업	계약 상대	규모
GC녹십자	전염병혁신연합(CEPI)	5억 도즈
SK바이오사이언스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미정
지엘라파	러시아국부펀드	1억5000만 도즈

※ 출처: 각 사

업계는 CEPI와의 CMO 계약 가치가 2조8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CMO 물량을 소화하기 시작하면 매출액 1조 원, 영업이익 5000억 원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국내 백신 후발주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백신을 잇달아 수주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2월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미국과 3억 도즈, 유럽연합과 4억 도즈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내년 1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SK바이오사이언스도 내년부터 본격 생산에 착수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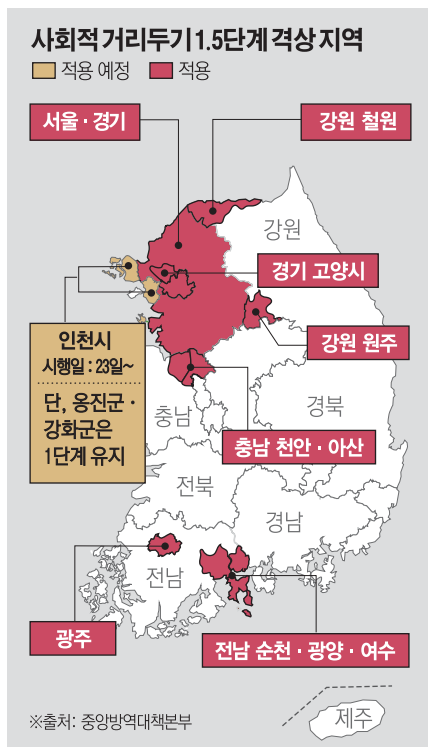
바이오기업 지엘라파는 자회사 한국코러스와 함께 세계 최초 코로나19 백신으로 등록된 러시아 '스푸트니크 V'를 생산키로 했다. 규모는 연간 1억5000만 도즈 이상이며, 12월부터 생산해 내년 1월엔 전 세계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의 백신 위탁생산은 K바이오의 가치를 키우는 한편, 백신 확보 경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온도 유지 문제로 유통이 쉽지 않아 국내에서 백신을 만들면 이 같은 우려를 줄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생산설비가 부족해 백신 CMO 사업이 떠오르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조용한 전파’ 급속 확산… “국민 자발적 거리두기 절실”

3·8월과 달리 소규모 집단감염
제주 외 전국서 확진자 증가세
“1.5단계서 확산세 잡아야”
교육부, 확진 학원·경로 공개



1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3명으로 급증했다. 8월 29일(323명) 이후 첫 300명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했다. 18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내 승강장이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급격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방역당국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최근 확산세는 3월, 8월 상황과 발생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당시에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를 통해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증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감염경로가 특정되지 않는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직장, 가족·지인모임 등에서 산발적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지표환자와 다른 감염경로 간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다. 지역적으로도 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확진자가 증가세다. 이는 전국 곳곳에 ‘숨은 감염원’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일부터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 조정돼도 그 효과는 잠복기(통상 5~7일)가 지난 다음 주 주말에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1주간은 기존 잠복기 환자들의 증상 발현으로 확진자가 늘어도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로 격상하기 어렵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문가들은 2단계 상향 기준으로 지금처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는 상황이 일주일 이상 지속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며 “1.5단계를 통해 2단계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다음 주 주말까진 확산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국민의 자발적 거리두기 참여뿐이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는 동안 감염이 확산하면 뒤늦게라도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로 재차 타격을 입게 된다.

또 감염지역·경로가 특정되지 않는 현재 발생 추이를 고려할 때, 확산세가 지속하면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격리를 통해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방역체계에도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강 조정관은 “거리두기 2단계는 오후 9시 이후 식당의 취식 금지뿐 아니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중단 등 강력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며 “많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에 지금 1.5단계 수준에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원·교습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되자 교육부 홈페이지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 명칭과 감염 경로를 공개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시·도 교육청 합동 수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학원·교습소 운영자분들께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2주간 발생할 모든 상황에 대비해 수험생의 감염을 차단하고자 어렵게 결정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까지 확진 수험생 120명, 자가격리자 38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별도 시험 공간이 마련됐다”며 “교육청은 자가격리 수험생은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능 1주 전인 26일부터 시험장 배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손현경 기자 son89@

올림픽보다
큰 운동회
관객도 박수 소리도 작은 경기지만
어린 선수들의 각오는 올림픽만큼 큽니다
건강한 체력과 인성이 자라는
꿈나무 체육대회는 세상 가장 큰 운동회입니다
대한민국의 보험은
사람입니다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체육꿈나무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1985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유소년 전국 종합체육대회입니다
KYOBO 교보생명

삼성·LG·SK 사업장 감염 잇따라

산업계, 방역 ‘비상’
해당 건물 폐쇄하고 소독
접촉 직원 2주간 재택근무

하루 확진자가 300명을 넘는 등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 가운데 삼성과 LG, SK 등 주요 대기업 수도권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수원사업장 모바일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삼성전자 직원 1명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건물 소독·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건물 전체를 하루간 폐쇄하기로 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근무하던 장소는 이달 20일까지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겐 재택근무 지침을 전달했다.

LG전자 서울 서초R&D캠퍼스에서도 직원 1명이 전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회사는 건물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19일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조사된 직원들은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2주간 재택근무를 하게 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SK이노베이션은 SK서린빌딩에서 근무하던 자사 직원 한 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해당 직원이 근무한 층을 폐쇄해 소독하고,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을 확인해 예방적 차원에서 귀가 조처했다.

전날에도 SK서린빌딩에서 근무하는 SK E&S 소속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SK E&S 전 직원이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도 했다.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사옥 내 층간 이동을 되도록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13명 늘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기록한 것은 8월 29일(323명) 이후 81일 만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가덕도 신공항’ 드라이브 건 민주당, 내주 특별법 발의

추진단 ‘패스트트랙’ 상정 방침
“예타 면제 등 특별법에 명시”
국민의힘 선거 눈치에 찬반 갈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단이 다음 주 특별법을 발의하고, 정기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 특별법이 통과되면 보궐 선거를 의식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있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이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의원을 비롯해 부산 출신 현역 의원들 모임인 ‘부산 갈매기단’, 울산과 경남 연고의 현역 의원들까지 특별법 제정 기자회견에 가세하고 나섰다.

이들은 회견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의 필수조건임을 내세워 조기 착공,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행정적 절차 간소화 방안을 특별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1991년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모델로 성안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실상 국토교통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전날 검증위 결과를 수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이 원하는 가덕도 즉시 추진과는 다르다.

이달 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국회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전제의 질문에 “수요 조사부터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바로 특정 지역을 정하는 것은 국토부 사업으로서 법적 절차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인호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국토부가 앞으로 김해공항 백지화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 뒤의 절차를 수립을 빨리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4월 보궐 선거용 정치 이벤트라는 비판 여론의 부담을 안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전재수 의원은 “만약 선거용이라면 임기 1년짜리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 어마어마한 카드를 쓰겠느냐”며 “대한민국은 매년 선거가 있다. 내년에 하면 재보선과 대선용이고 내후년에 하면 지방선거용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도 설치했고, 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리겠다고도 말했다.

특별법 법안 발의는 여야 부울경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공동발의하거나 각자 발의한 후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패스트트랙’ 방안은 부작용이 커서 쉽지 않다는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지도부 내 이견이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내년 보궐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까닭에 여당의 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기엔 부담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인 조재연〈오른쪽〉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손으로 입을 가리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장 추천 불발… 추천위 활동 사실상 종료

세 차례 표결에도 정족수 못미쳐
여야 ‘공수처법 개정’ 갈등 고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약 4시간 30분간 검증 작업을 이어갔으나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앞선 2차 회의 이후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추천위원 7명은 세 차례에 걸쳐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시도했으나 모두 정족수인 6명을 넘기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 득표자 4명으로 범위를 좁혀 표결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마찬가지로 정족수에 못 미쳤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들었다”며 “다음 회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결론 내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위 자체가 정치적 대리 싸움이 되면 안 된다”며 “정치에서 시작했으니 정치로 돌아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재추천을 해서 새로운 후보 심의 절차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의를 속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며 “추천위가 일종의 행정기구인데 자진해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까지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않으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졸속 출범해서는 안 된다며 처장 후보를 신중히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이에 따라 향후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재벌 지주사, 수익 절반이 ‘브랜드 수수료·임대료’

내부거래 비중 높아…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시급”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평균 50%에 이르는 재벌그룹 지주회사의 수익 절반 이상이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外) 수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의 71%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회사·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조사됐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 안팎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부당 이익 수취로 이어지는 일감 몰아주기 발생 우려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수 있는 일반지주회사 체제전환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은 SK, LG, 롯데, CJ 등 총 22개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27곳)에 대한 총수 및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3%, 49.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들 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총매출액에서 내부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5.25%로 전년(15.77%)과 유사하지만 일반집단(10.48%)보단 현저하게 높았다.

전환집단 소속 대표지주회사(22곳)의 수익구조를 보면 배당수익(매출액의 40.9%)보다는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51.9%)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해 일감 몰아주기를 보다 철저히 방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유승민, 대권 재도전 선언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 시사

유 “떠난 국민 마음 돌릴 것”
금 “보선 여러 세력 힘 합쳐야”

야권의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이었던 금태섭〈오른쪽〉 전 의원은 출마를 시사했으며, 유승민〈왼쪽〉 전 의원은 대선 재도전에 무게를 실었다.

유 전 의원은 18일 오전 전날 오픈한 사무실 ‘희망22’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대선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던 사람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 같은 노력을 공개적으로 시작한다”며 “서울시장 출마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전 의원은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했다. 그는 “다시 이 당에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탄핵 이후 우리 당에서 마음이 떠난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 그 이후 2022년 대선에서 꼭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드는 데에 제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수도권 젊은 층과의 스킨십부터 시작하고 관심도가 높은 주택, 일자리, 남녀차별, 보육 등의 정책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유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수도권에서 시작해 향후 영남 유권자 마음까지 열어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지지율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불교에서 말하는 발심(發心)이 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분이 정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링 위에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윤 총장과 함께 다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들의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서울시장의 의미와 역할의 의미를 깊이 고민해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금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합리적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나도 나름의 역할을 찾을 거지만, 국민의힘도 나름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박준상 기자 joooooon@

‘최대 50만원’ 돌봄비 신청 내달 20일 마감

13만여 명에 474억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장 10일간 하루 5만 원씩 지급하는 휴가 비용 신청 접수가 내달 20일 종료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녀 돌봄 등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이 다음 달 20일까지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신청 접수를 마감하는 것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장 20일의 휴가(무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교 제한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많았다.

정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장 10일 동안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이미 휴가를 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다음 달 중 휴가를 쓸 예정인 근로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접수한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고도 휴가를 못 쓴 경우에는 반납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지급한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이달 12일까지 474억 원이며 수급 근로자는 13만 1772명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62%)이 남성(38%)보다 많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53%)가 절반을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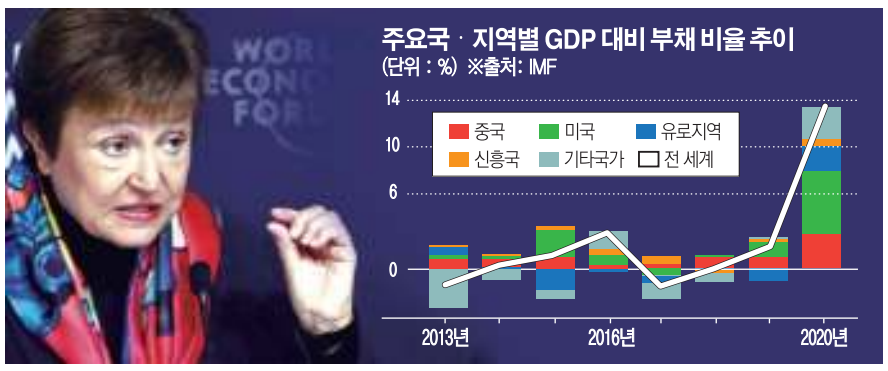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19조5000억 달러:약 2경1567조 원〉

IMF "20,000,000,000,000,000원도 부족하다"

'2020년 연차보고서'

전세계 코로나發 경제 살리기 전례없는 조치에도 회복 더뎌 각국에 "돈 더 풀어라" 주문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추락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쏟아 붓기로 한 자금이 19조5000억 달러(약 2경1567조 원)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여전히 회복이 더뎌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간) 'A YEAR LIKE NO OTHER(전례 없는 한 해)'라는 제목의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IMF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가 9월 시점에 12조 달러, 중앙은행이 7조 5000억 달러, 총 19조5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통화 조치를 약속했다고 분석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사진〉 IMF 총재는 연례보고서 발간사에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러한 지원 덕분에 IMF도 코로나19 이후 도움이 필요한 곳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IMF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용과 경제 활동 침체는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수준에 있다며 오히려 국가 부채만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9년 2%에도 못 미쳤지만 올해는 13% 수준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 10년 간 낮은 금리로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역사적으로 높은 부채 리스크를 안게 됐다"며 "부채 취약성은 코로나19 대유행과 록다운(봉쇄령)으로 더 가파르게 늘어났다"고 경고했다.

그나마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의 위안거리이지만,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경제 회복엔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주장하며 조 바이든 차기 정부의 경기부양책 시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점도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라고 짚었다. 유럽 역시 내년 1월 1일 출범 예정인 8000억 유로(약 1050조 원) 규모 구제기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일부 국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재정 정책이 아직 가계에까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이 너무 일찍 끊기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회복되는 힘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닐 셰어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정 지원 철회는) 가장 큰 위험이자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재정정책이 줄면 경제 성장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수요 약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 연준) 의장 역시 이달 초 미국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최근 코로나19 발병 증가가 우려스럽다"며 "조금이라도 더 재정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면 강한 회복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전망은 불확실하다"며 "190개 회원국이 협력해 보다 탄력적이고 포괄적인 회복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코로나 최악 사태 올 수도" 손정의, 800억 달러 비축

손정의〈사진〉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경우에 대비해 거액의 현금을 비축해뒀다고 밝혔다. 그는 백신 상용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향후 2~3개월 안에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NYT) 주최로 17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딜북 콘퍼런스'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와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앤서니 파우치 미국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위기와 그 이후를 논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손 회장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현금을 쌓고 있다"며 "이미 800억 달러(약 88조 원)를 확보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2~3개월 안에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며 "백신 개발 등 장기적으로는 낙관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으로 본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결과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내성이 생겨 전반적인 효과를 줄일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백신의 효과와 접종하는 사람의 수에 달려 있다"며 "내년 가을이면 어느 정도 정상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또 "백신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공중보건 조치를 대체할 수 없다"며 "공중보건은 정치와 상관없다"고 당부했다.

게이츠 창업자는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해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출장은 50% 이상 줄어들 것이고, 사무실 근무 역시 30% 넘게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재택근무가 현실화한 만큼 집에서 일할 방법은 항상 있을 것"이라며 "대면 회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신을 개발해 사람들에게 칩을 심으려 한다는 음모론에 시달리고 있는 게이츠는 "(음모론이)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며 "불확실한 시대라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선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백신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감염률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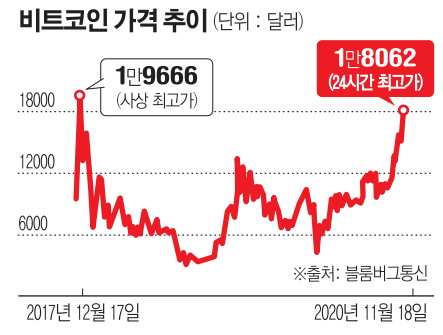
불라 화이자 CEO는 백신 개발 과정에서 외부적인 압력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일정을 대선 전으로 맞추라는 압박은 없었다"며 "선거일은 대통령에게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백신 안전성 데이터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혜림 기자 rog@

경찰 물대포 맞선 '오리 튜브' 17일 태국 방콕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오리튜브를 방패막이 삼아 경찰의 물대포를 버티고 있다. 태국 의료당국에 따르면 이날 시위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6명을 비롯해 총 55명이 다쳤다. 태국 경찰은 의회로 진입하려는 시위대를 막는 과정에서 물대포를 쏘고 최루가스를 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대는 과거 쿠데타로 군사정권을 이끌었던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사퇴와 왕권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왕실 비판이 법정 양형 사유에 포함된 현행 헌법의 개정도 촉구하고 있다. 방콕/AP연합뉴스

비트코인 "다시 가즈아"… 2만 달러 코앞

희소성 높아지며 3년 만에 최고치



가상화폐의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1만8000달러(약 1986만 원)를 돌파하며 가상화폐 광풍이 일었던 3년 전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2만 달러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한때 1코인당 1만8062달러까지 치솟았다. 비트코인 가격이 1만8000달러를 돌파한 건 가상화폐 열기가 정점에 달했던 2017년 12월 이후 3년 만이다.

비트코인은 2017년 12월 17일 2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1년도 안 돼 3136달러까지 주저앉았다. 최근 들어 다시 가상화폐에 돈이 몰리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연초 대비 150% 뛰었고, 3월 저점에 비해선 무려 360%나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의 대체 투자처로 주목을 받는 데다 세계적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업체 페이팔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등 호재가 겹쳤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금융완화 정책과 함께 큰손인 기관투자자들까지 가세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 컨설팅업체 퀀텀이코노믹스의 창업자 마티 그린스펀은 "비트코인은 탄생 이후 세계에서 손꼽히는 투자처 중 하나가 돼 왔다"며 "실탄이 두둑한 큰손들은 얼마 남지 않은 매수 가능 물량을 확보하려 혈안"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니콜라스 펠레카노스 NEM블록체인 트레이딩 책임자는 "시장 구조와 안정적인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은 수일 내에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블룸버그통신은 추수감사절 전에 2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회의론도 여전하다.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 달리오는 트위터에 "비트코인은 화폐처럼 교환수단, 가치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트코인이 기존 법정 화폐를 위협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불법화할 수 있는 데다 중앙은행이나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효선 기자 hsbyun@

'온라인 배달약국' 연 아마존… 오프라인 체인 흔들

'아마존 파머시' 인터넷으로 처방약 배송… 기존 약국업 주가 폭락

온라인 유통공룡 아마존이 약국 사업에 뛰어든다. 이 소식에 경쟁업체 주가가 폭락하는 등 벌써부터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아마존파머시'라는 모바일 앱을 공개하며 약국 시장 진출을 알렸다. 이 앱은 아마존 사이트를 비롯해 약 5만 개의 약국과 제휴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처방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하며, 유료인 아마존프라임 회원에게는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마존은 이미 2017년부터 온라인 약국 사업을 준비했고, 2018년 온라인 약국 스타트업 '필팩'을 7억5300만 달러(약 8328억 원)에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진출을 꾀했다.

필팩의 공동 창립자인 TJ 파커 아마존 파머시 부사장은 "우리는 아마존 고객들을 이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산업으로 이끌기 위해 아마존파머시를 만들었다"며 "사람들이 쉽게 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집으로 배달해주려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약품 소비는 늘었지만, 약국 방문은 꺼리는 소비 패턴의 변화가 아마존의 도전을 재촉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파머시는 18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프라임 회원이면 할인가에 2일 내 무료 배송으로 약품을 받아볼 수 있다. 일반 약품은 최대 80%, 브랜드 약품은 최대 40% 할인된다. 일반 고객 역시 배송은 무료이지만, 최장 5일이 걸린다. 단, 5.99달러를 추가로 내면 2일 내에 받아볼 수 있다.

아마존파머시 홈페이지 캡처 화면

아마존의 약국 진출 소식에 미국 약국 체인 양대 산맥인 CVS헬스와 월그린스 주가는 각각 8.59%, 9.63% 폭락했다. 약품 유통업체 카디널헬스(-6.48%)와 맥케슨(-5.50%) 역시 급락 마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LG U+

LG유플러스가 소외계층 아이들의 1:1 원격수업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19가 길어지면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스마트 패드와 「U+초등나라」 서비스 지원을 시작합니다

대학생 봉사단의 1:1 멘토링 원격학습과 따뜻한 돌봄의 손길로

아이들의 꿈 옆에 LG유플러스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U+초등나라」는 초등 교육 인기 콘텐츠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U+ 전용 서비스입니다

EBS 스마트 만점왕

리딩 게이트

아이들 생생도서관

과학놀이교실

3년 옥살이에 수백억 챙겨… 처벌 비웃는 경제사범

2014년, A 씨는 문이 닫힌 분식집에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었다. 허기를 채운 뒤 라면 10개와 2만 원 가량이 담긴 동전통을 훔친 A 씨는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절도죄 전과 이력 때문에 A 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팔고 시세차익으로 130억 원을 챙겼다. 이후 투자자들에겐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40억 원을 끌어 모아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292억 원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했다. 수백억 원을 챙긴 이 씨의 형량은 A 씨와 같은 3년 6개월이다.

대형 금융범죄 연루자 혐의 및 선고 결과

금융범죄 연루자	혐의	결과
금감원 퇴직 간부 A	부산저축은행 검사 편의 청탁, 뇌물 수수 혐의	징역 1년, 추징금 2억1000만 원(2심)
금감원 간부 B	금감원 감독 결과 누락 혐의	징역 10개월(2심)
금감원 직원 C	금감원 감독 결과 누락 혐의	징역 10개월(2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징역 2년 6개월(2심)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업무상 배임 혐의	징역 2년 6개월(2심)

생계형 범죄자 10명 중 9명 실형

특경법 위반 사범은 25%가 집유

범죄 형량 '비례성 원칙' 어긋나

국내 경제사범 최고 양형 23년

100년 이상 징역형 등 美와 대비

횡령·배임·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화이트칼라 금융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이한 인식이 범죄를 양성하고 있다. 사회 안전망의 빈틈으로 발생한 생계형 범죄와 누군가 평생을 모은 돈을 거짓말로 현혹해 악탈하는 금융 범죄의 형량이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사범에도 마땅한 책임을 물어 미래의 금융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8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위반 사범 1676명 중 25%인 423명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상습강도·절도범(1891명) 등 일반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1명도 없었다. 특경법은 횡령·배임 등으로 챙긴 돈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경법 위반 사범의 57%(959명)가 실형, 나머지 10%(166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반면 상습강도·절도범은 91.6%(1733명)이 실형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80억 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그룹 임원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반면 열흘을 굶다가 달걀 18개를 훔친 B 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금융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금융 범죄는 신뢰 산업인 금융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다.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까지 지낸 유력 금융인 버나드 메이도프도 미국의 엄격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메이도프는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형식으로 주는 폰지 사기로 650억 달러의 피해를 야기 했다는 혐의로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우리나라 역대 경제사범 중 최고 양형이 23년인 것을 비춰볼 때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융 범죄에 대한 인식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범죄로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형을 받으면 누가 선뜻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나, 초범이라고 감경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범죄은닉자금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수빈 기자 bean@

투자자 울린 금융인·정치인… 사기극 '숨은 조력자'

'옵티머스 연루' 전 금감원 국장, 인사 소개 대가 뒷돈

김봉현 "정치인에 라임 펀드 로비" 옥중 입장문 밝혀

환매 중단 피해액만 2조 원에 달하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융인 또는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과거 사건들과 판박이다. 이름만 바뀐 채 반복되는 금융 범죄의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경제사범과 금융인, 정치인이 서로의 편의를 봐주는 동안 '덜 먹고 덜 쓰면서' 한푼두푼 모은 투자자들의 돈은 사라졌다.

◇범죄 도와준 금융감독원 직원들= 6조 원대 불법 대출, 3조 원대 분식회계로 부산 지역 경제를 망가뜨린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엔 금감원 직원이 대거 연루됐다. 부산저축은행 측은 검찰에 금감원 퇴직 간부인 A씨 에게도 매달 300만 원, 총 2억여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관련해 A씨는 퇴직 후에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이 금감원의 검사를 받을 때 담당 국장에게 "검사를 세게 하면 안 된다"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돈을 받은 것은 일부 인정했으나 대가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금감원 간부 B씨와 직원 C씨는 부산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240여억 원을 초과 대출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적 사항에서 제외해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들이 직무를 유기 후 은행이 불법 영업을 지속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며 "영업정지 처분으로 예금자와 투자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는 모두 3만8000여 명으로 약 피해액은 6268억 원이다.

금감원 직원에 투자자들이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은 사건에 연루된 건 최근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전하다'는 거짓말로 5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이 과정에서 윤 모 전 금감원 국장은 옵티머스 측에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던 옵티머스는 투자금 98%를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에 투자했고 이는 투자자에게 손실로 돌아갔다.

◇정치권도 금융사기 한 통속= 옵티머스 사태가 금융계 커넥션으로 요약된다면 라임 사태 핵심 커넥션은 정계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달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야권 인사에게 로비를 벌였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한 후 실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우리은행장 등에게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4일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고검장 출신 변호사 윤모씨(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윤씨와 우리은행 측은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정계와 연결된 금융 관련 범죄는 2017년 국민연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의 비율로 합병하면 국민연금이 손해를 봄에도 이런 손해를 감수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이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최고 6700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10년이 지나도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의 원금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연금의 손실은 국민 전체가 부담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역시 투자자들의 투자금 되찾기는 요원하다. 사건 내부에서는 금융계와 정계가 금융 범죄를 돕는 동안 외부에서는 이름만 바꾼 금융 사고가 거듭되고 있다. 문수빈 기자 bean@

"美처럼 형량 합산… 범죄 유인 동기 차단해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금전적 제재 가중 등 처벌 강화

금융범죄 악순환 고리 끊어야"

"범죄의 기회비용이 낮아 금융 범죄자가 다시 금융 범죄로 유인되는 악순환이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권은희〈사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금융 범죄의 형량을 기회비용에 비유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사범은 경제적 이득을 노리기 때문에 범죄의 결과 경제적 이득이 없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며 "기회비용이 크다는 걸 인식하면 범죄 유인 동기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비교해 한국의 처벌은 관대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 뉴욕의 사업가 숄람 와이스가 내셔널 헤리티지 라이프 인슈어런스를 상대로 4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사기로 징역 845년을 선고받은 반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 1심에서 8년을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권 원내대표는 "금융 사기범이 사기를 영업처럼 하는 게 문제"라며 "영업 형태로 나타나는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고 이들에게 금전적인 제재가 가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형량을 합산하지만 우리는 중한 형량이 경한 형량을 흡수한다"며 "미국처럼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면 금융시장 교란을 막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된 156명 가운데 절반은 상습범으로 확인됐다. 무자본 M&A는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태 때 끌어모은 투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지목됐다. 권 원내대표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관련 범죄자들은 미국처럼 형량을 합산하면 기본이 징역 30년이지만 우리나라 법으론 많아야 12~15년 정도"라며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금융 사기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정보 공개를 제시했다. 진실 규명을 통한 재범의 방지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이유에서다.

권 원내대표는 "금융 시장에서의 악순환이 심각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관련 안건 상정을 다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글=문수빈 기자 bean@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나프타분해설비〉

LG화학·롯데케미칼, 연내 NCC 재가동 총력

석유화학 기초연료 생산 복구
시황 좋아 영업이익 큰폭 개선
"롯데케미칼 실적 내년엔 4배"

LG화학 여수공장(위)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이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연내 재가동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NCC는 나프타를 8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열분해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기초원료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18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이달 5일 여수 NCC 조정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중단된 생산설비의 가동을 연내 재가동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LG화학이) 내부적으로 재가동 기한을 이달 25일로 잡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가 난 곳이 콘트롤룸(조정실 Rack Room)이어서 비교적 쉽게 재가동이 가능하다"면서 "비유를 하자면 리모컨이 고장났을 때 리모컨만 교체하면 되는 것처럼 주요 콘트롤룸 외에 설비에 보조 콘트롤룸이 있어서 그쪽으로 작업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날짜 기한에 관해선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동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롯데케미칼 역시 올해 3월 폭발사고로 가동이 멈춘 충남 서산의 대산공장 NCC를 재가동하기 위한 인허가 작업에 착수했다. 롯데케미칼은 현재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대산공장 NCC를 가동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인허가 작업이 설비를 재가동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만큼 내달 정상복구를 목표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12월 중순이면 롯데케미칼이 대산 NCC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이 연내 다시 NCC 가동을 한다면 최근 석유화학 시황이 강세를 보이는 만큼 큰 폭의 수익성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석유화학 산업은 NCC 중심의 호조가 전망된다. 저유가에 따라 NCC의 수익성이 복원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경기 반등에 성공한 중국을 중심으로 재고 확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지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수요 감소로 유가가 하락하며 나프타 원료가 다시 싸졌다"며 "내년에도 NCC의 원가 우위는 지속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사의 실적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분기 화학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1%에 달했으며, 업계에선 경기 회복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추가적인 영업이익률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LG화학은 올해 석유화학 사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5조 원,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에는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관측된다. 메리츠증권 기준 석유화학 사업부의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19조 원, 2조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대산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영업이익이 4300억 원가량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내년엔 이보다 4배가량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산공장 재가동과 에틸렌 등 석화 제품의 상승 사이클 진입으로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 규모는 1조7000억 원"이라며 "특히 대산공장에서만 3700억 원의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최태원(앞줄 왼쪽) SK 회장이 17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2020 행복얼라이언스 데이'에서 회원사 관계자들과 협약서를 들고 있다. 사진제공 SK

최태원, 100개 '행복얼라이언스'와 100만끼 나눔

민관 손잡고 아동결식 문제 해결
설립 4년 만에 회원사 100곳 돌파

기업·정부·시민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연합체 '행복얼라이언스' 참여 회원사가 100곳을 돌파했다.

SK그룹은 행복얼라이언스 운영을 맡은 사회적기업 '행복나래'가 17일 오후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2020년 행복얼라이언스 데이(DAY)'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출범 이후 성과를 공유하고 아동 결식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2016년 최태원 SK 회장의 제안으로 설립됐다. 참여사들의 역량과 자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결식 우려 아동 2만여 명에게 100만 끼를 제공해왔다. 비타민, 영양간식 등 생필품을 담은 '행복상자'도 지난해 3000개, 올해 1만1000개를 수해 아동 등에게 전달했다.

올해는 지자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아이들을 찾아 지원하는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행복얼라이언스가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메우고, 협력 파트너인 지자체가 예산편성으로 지원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현재 7개 지자체(시흥시·구례군·인천남동구·안산시·당진시·순창군·경주시)와 진행 중이다. 전국 226개 지자체 모두와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많은 사회문제 중에서도 아이들이 영양 불균형에 놓이는 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기업과 사회가 힘을 합쳐 하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사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른 사회문제들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고자 했다"고 출범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행복얼라이언스를 통해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정부, 지자체, 시민 등 여럿이 힘을 모으니 길이 열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의 협력이 아이들을 위한 결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은 "행복얼라이언스의 가치와 철학이 중국에도 뻗어가고 있다"며 중국 하이난성에서 SK와 중국 청소년 학습지원 공익단체인 광화기금회가 공동으로 결성한 '해피 러닝 얼라이언스(Happy Learning Alliance)'를 소개했다. 23일 출범 예정이며 학습환경 개선, 교보재 제공 등 빈곤지역 초등학생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삼성엔지니어링, '두산 헝가리 전지박' 증설 공사

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엔지니어링의 헝가리법인이 17일(현지시각) 두산솔루스와 '헝가리 전지박 제2공장 증설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약 1500억 원으로, 삼성엔지니어링이 EPC(설계·조달·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하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서쪽 50㎞에 위치한 터터바녀 산업단지 내에서 진행될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공장에 연산 1만5000톤(t) 규모의 전지박 플랜트를 증설하는 사업이다. 이 플랜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소재인 동박(얇은 구리막)을 생산하게 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제1공장 공사에 이어 이번 제2공장 사업까지 두산솔루스로부터 또다시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올 4분기에만 멕시코 정유 플랜트, 국내 바이오 플랜트, 이번 헝가리 전지박 플랜트 등 잇단 수주소식을 전해오고 있다.

이주혜 기자 winjh@

GS칼텍스, 미래 에너지 브랜드 론칭

'주유·충전·물류' 다기능 주유소
카드·커뮤니케이션 채널 등 활용

GS칼텍스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플러스' 브랜드를 선보인다.

GS칼텍스는 18일 서울 서초구에 새롭게 문을 연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 삼방'에서 '에너지플러스(energy plus)' 브랜드 론칭 행사를 열고 에너지플러스 브랜드가 처음 적용된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energy plus hub·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 GS칼텍스의 새로운 브랜드 에너지플러스는 '에너지, 그 가능성을 넓히다'라는 개념 아래에 에너지기업의 변화와 확장의 의지를 전달하고 미래 지향적 사업영역을 통합하는 브랜드로 사용될 예정이다.

에너지플러스 브랜드가 적용되는 사업영역은 △기존 주유소 모델을 탈피한 미래형 주유소 △도심형 라이프스타일 복합개발 △GS칼텍스 고객에게 특화된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모바일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등이다.

에너지플러스 브랜드가 처음 적용된 미래형 주유소는 '에너지플러스 허브'로 명명된다. 기존 주유소 공간을 재해석해 주유, 세차, 정비 외에 전기·수소차 충전, 카셰어링,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같은 모빌리티 인프라와 물류거점, 드론 배송, 편의점 및 F&B(Food & Beverage) 등의 라이프서비스 콘텐츠가 결합한 새로운 에너지 충전공간으로 거듭난다. GS칼텍스는 지역별 특성과 고객의 수요에 맞춰 에너지플러스 허브를 연말까지 서울과 부산에 2개소를 신규 구축하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는 "고객이 차량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삶의 에너지가 함께 플러스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서비스를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플러스 EV 존에는 LG전자와 협업해 국내 정유사 중 최초 설치한 350킬로와트(kW) 초급속 충전기 등급속충전기 4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350kW 초급속 충전기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초고속 충전시스템을 탑재한 전기차를 기준으로 80% 충전까지 15분 정도 소요돼 전기차의 빠른 충전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유진 기자 eugene@

현대차 '신중년 일자리 찾기 사업' 65% 재취업

현대자동차그룹이 50~60대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굿잡 5060' 사업 참가자 64.7%가 일자리를 얻는 데 성공했다.

현대차그룹은 17일 '굿잡 5060 온라인 성과공유회'를 열고 3년 동안의 사업성과를 발표했다.

'굿잡 5060 온라인 성과공유회'는 일자리 창출 성과와 신중년 세대에게 특화한 취업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올해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2018년 7월 출범한 '굿잡 5060' 사업은 50~60대 신중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현대차그룹)과 정부(고용노동부), 공공기관(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회적기업(상상우리) 등 민·관·사회적기업이 협력해 만든 사업이다.

'신중년'이란 한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자 생산 가능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50~60대를 가리킨다. 굿잡 5060은 출범 이래 신중년 268명의 재취업을 지원하며 취업률 64.7%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상용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굿잡 5060은 지원자 1909명 중 심사를 거쳐 참가자 414명을 선발했다. 참가자의 평균 나이 55.2세로, 평균 23.9년의 경력을 보유한 은퇴 인력들이었다. 재취업자들은 입사 후 수월하게 조직에 적응했다. 중도 퇴사자를 제외한 218명이 새 조직에 안착해 고용유지율은 81.3%에 달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이통3사, 마케팅 줄였다더니… 대리점 판촉비는 증가

올해 누적 판매수수료 6.8조 원…지난해보다 증가
"갤노트20 등 5G 플래그십 모델 출시로 수수료 늘어"
MNO 순증 가입자는 LG U+ 빼고 모두 '뒷걸음질'

이통 3사가 올해 3분기까지 대리점 등 유통망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마케팅 비용이 줄고, 이동통신부문(MNO) 가입자 순증이 전년 대비 줄었는데도 유통 매장에 뿌려지는 보조금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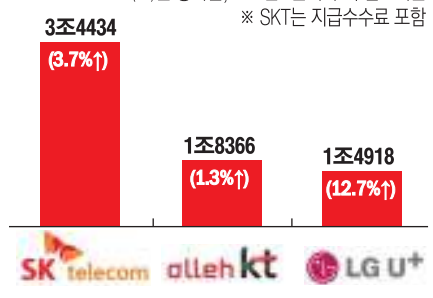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별도 기준으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판매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수수료는 이통사들이 단말기를 신규 개통하거나 기존 개통을 유지하는 등 일선 대리점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 성격이다. 여기에는 불법 보조금이라 일컫는 초과지원금도 포함된다. 초과지원금은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으로 이용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단말기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말한다. 일부 대형유통매장이나 집단상가 등에 리베이트 형태로 지급되며, 단통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통사별로 살펴보면 SKT의 지급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계정은 3분기 누적 3조443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다만, 타사들과 달리 SKT는 판매수수료와 지급수수료를 함께 집계해 규모가 제일 크다. 지급수수료는 광고 대행사 등에 지급하는 마케팅 제반 비용이 포함됐다. SKT는 수수료 증가에 관해 "단순 대리점 지원금뿐 아니라 다른 마케팅 수수료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3사 판매수수료 비교 (단위: 억 원)

※ ( )는 증가율, 2020년 3분기 누적 별도기준
※ SKT는 지급수수료 포함



KT의 판매촉진비 및 판매수수료는 1조83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LG유플러스의 판매수수료 계정은 1조4918억 원으로 12.7% 늘었다.

이통사들은 '갤럭시 노트20'과 같은 5G 플래그십 모델이 출시하면서 판매수수료 규모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갤노트20은 올해 8월 출시했다.

이통사들은 판매수수료 외에 광고선전비는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행사가 줄어든 영향이다. 실제 각사별 누적 광고선전비는 SKT 6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 줄었다. KT는 8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1% 감소했고, LG유플러스는 152억 원으로 32.5% 줄었다.

한편 이통사들의 판촉비는 늘었으나 MNO 신규 가입자 순증은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뒷걸음질했다. 순증 가입자는 신규 가입자에서 해지 가입자를 뺀 규모다.

올해 3분기까지 SKT의 MNO 가입자 순증 규모는 38만5000명으로 전년 76만1000명에서 크게 줄었다. 다만 5G 가입자의 증가로 3분기 기준 MNO 사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매출 2조9400억 원을 기록했다.

KT는 알뜰폰(MVNO)을 포함해 올해 3분기까지 무선 서비스 순증 가입자가 41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65만1000명에서 20만 명 이상 빠졌다. KT의 3분기 무선사업 매출액은 1조74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0.9% 늘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3분기까지 무선 순증 가입자가 누적 101만 명으로 전년 누적 83만 명에서 21.7% 증가했다. 3분기만 따지면 MNO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6.3%, MVNO 가입자는 41.6% 늘어 전체적으로 MVNO가 가입자 증가에 이바지했다. 3분기 무선서비스의 매출액은 1조45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늘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컴업 2020' 개막식 무대.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포스트 코로나 이끌 주인공 되자"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0' 개막

오늘부터 사흘간… 학술대회 등 온라인 실시간 중계

전 세계 스타트업이 우리나라가 여는 스타트업 글로벌 축제에 총출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컴업 2020 조직위원회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20'이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의 대축제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컴업(COMEUP)은 세계 각국에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리고 K-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자 작년부터 시작한 행사로, 아시아 최고 스타트업 축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올해 컴업(COMEUP)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고려,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협력과 토론의 장'으로 기획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주요 스타트업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 개최되는 상황에서도 중기부와 조직위는 '컴업 2020'을 기획단계부터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행사로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

그 결과 오히려 작년보다 행사 기간을 확대(2→3일)하고, 초청 연사·토론자(62→114명)와 해외 강연·토론 연사 규모(9→36명)를 늘리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19일 오전 10시 일산 CJ ENM 제작센터에서 개최되는 '컴업 2020' 개막식 행사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박영선 중기부 장관, 김슬아 컴업 민간조직위원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컴업 2020'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모든 행사 내용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12개 분야별 학술대회와 함께 인공지능(AI) 챔피언십 등 7개의 특별행사와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학술대회'는 분야별로 세계적 스타트업 환경을 선도하는 저명한 연사와 토론자 114명이 참여하는 열띤 강연과 연사 토론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하는 해외 명사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특별 좌담회 및 강연도 진행한다.

19일 슬러시 대표 미카 후투넨의 특별좌담을 시작으로, 20일 인공지능 전문가인 페이페이 리 스탠퍼드대 교수의 좌담, 21일 알베르토 사보이야의 강연 등을 3일 동안 매일 만나볼 수 있다.

부대행사는 국내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마련한 행사로 투자·수출 상담회, 선·후배 교류 등으로 구성되며 컴업 스타즈(120개사)가 세계적 스타트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컴업 2020은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세계의 표준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성공모델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의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의 '선도모델'을 개척한다는 자세로 준비했다"면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컴업 2020'을 계기로 전 세계 스타트업이 연대·협력해야 하며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은 스타트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신분증·운전면허증 담는 '카톡 지갑' 나온다

'if 2020' 콘퍼런스 '디지털 신분증' 연내 출시… 콘텐츠 구독 플랫폼도 선봬

카카오의 신규 서비스가 공개됐다.

카카오는 'if(kakao) 2020' 콘퍼런스 첫날 '카카오가 준비하는 더 나은 내일'이라는 주제로 18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는 '지갑', '콘텐츠 구독', '상품 구독', '멜론 트랙제로' 출시 등 곧 출시를 앞둔 서비스의 개편 내용을 공개했다.

카카오는 신분증, 자격증, 증명서를 카카오톡에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갑'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분실이나 훼손 우려 없이 본인 증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전자출입명부 QR 체크인,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획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순차적으로 담긴다. 향후 모바일 신분·자격 증명 서비스가 필요한 각종 단체·재단·기업·교육기관 등과 추가 파트너십을 체결해 활용성을 점차 높여나갈 계획이다.

구독 플랫폼 또한 손질했다. 창작자가 뉴스·미디어, 음악, 게시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양질의 콘텐츠를 창작 및 유통하는 공간이다. 이용자는 관심사에 따라 여러 콘텐츠를 구독할 수 있다. 이용자들의 친숙도와 가독성을 위해 현재 포털의 콘텐츠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적용할 예정이다.

PC와 모바일을 통해 콘텐츠 구독 플랫폼이 서비스되며, 카카오톡의 세 번째 탭(#탭)과도 연결된다. 포털 다음의 서비스는 새로운 서비스와 병행해 그대로 유지되며, 이용자의 뉴스 선택권 강화를 위한 서비스 고도화 작업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공간도 연내 개편한다. 파트너들은 예약·구독·배달·티켓예매 등 목적에 따라 템플릿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한 웹사이트와 SNS 채널에도 연동시킬 수 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명불허전 '아이온' 게임차트 역주행

12주년 맞아 클래식 서버 오픈
PC방 점유율 3.45%… 6위로

엔씨소프트는 MMORPG '아이온'이 서비스 12주년을 맞아 오픈한 클래식 서버를 중심으로 차트에서 역주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아이온은 엔씨소프트의 대표 지식재산권(IP) 중 하나다. 2008년 출시되던 해에 대한민국 게임대상을 받았으며 PC방 점유율 160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게임 중 최장기간에 해당한다. 게임 전문 리서치 서비스 게임트릭스에 따르면 아이온은 전날 기준 PC방 점유율 3.45%를 차지하며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아이온 클래식 서버는 오픈 첫날부터 추억의 콘텐츠를 즐기려는 유저들로 접속 폭주를 이뤘다. 11일 두 개의 서버로 시작했으나 오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버 두 개를 추가할 정도로 유저들이 몰렸다.

아이온 클래식 서버는 2009년 4월 공개된 1.2 업데이트 버전을 플레이할 수 있다. 과거 버전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최근 게이머들의 플레이 패턴과 콘텐츠 소비 속도 등을 고려해 밸런스를 소폭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예고 없이 열렸던 요새전도 특정 요일과 시간에 확정적으로 열려 계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종족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공의 균열 오픈 확률은 높아졌으며 원활한 PvP 진행을 위해 학살자 디버프도 일부 수정했다.

아이온 클래식은 총 8개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이용자는 클래식 서버에서 캐릭터를 육성하는 아이온 본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캐릭터의 성장과 사냥을 위한 다양한 조작법과 스킬을 활용해야 하는 초기 버전 콘텐츠의 신선함을 살렸다. 캐릭터의 육성을 완료하면 다른 이용자와 함께 '드라웁니르 동굴'도 공략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암흑의 포에타', '데바니온 퀘스트' 등의 콘텐츠를 플레이할 수 있는 1.5 버전도 차례대로 업데이트 예정이다.

클래식 서버는 오픈 후 일주일간 시간 제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으며 일주일이 지난 뒤에는 매일 1시간씩 무료 플레이 시간을 제공한다. 이후에는 오픈 초기와 같게 월정액으로 즐길 수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장소 제약 없는 근무환경" SKT '워크 애니웨어' 추진

박정호〈사진〉 SK텔레콤 사장이 거주지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워크 애니웨어(Work Anywhere)'를 추진한다.

18일 SKT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박정호 사장은 서울 을지로 본사 수펙스홀에서 '워크 애니웨어 - 일하는 방식 혁신'을 주제로 1시간에 걸쳐 온·오프라인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현장에는 사전 참여를 신청한 30여 명의 SK ICT패밀리사 임직원만 배석하고, 다른 직원들은 화상 콘퍼런스 솔루션으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박정호 사장은 "예전으로 100% 돌아갈 수 없기에 우리 근무, 소통 방식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연구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쌓은 데이터, 비대면 기술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는 시도 중 하나로 거점 사무실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새로운 조직 문화와 새로운 공간 활용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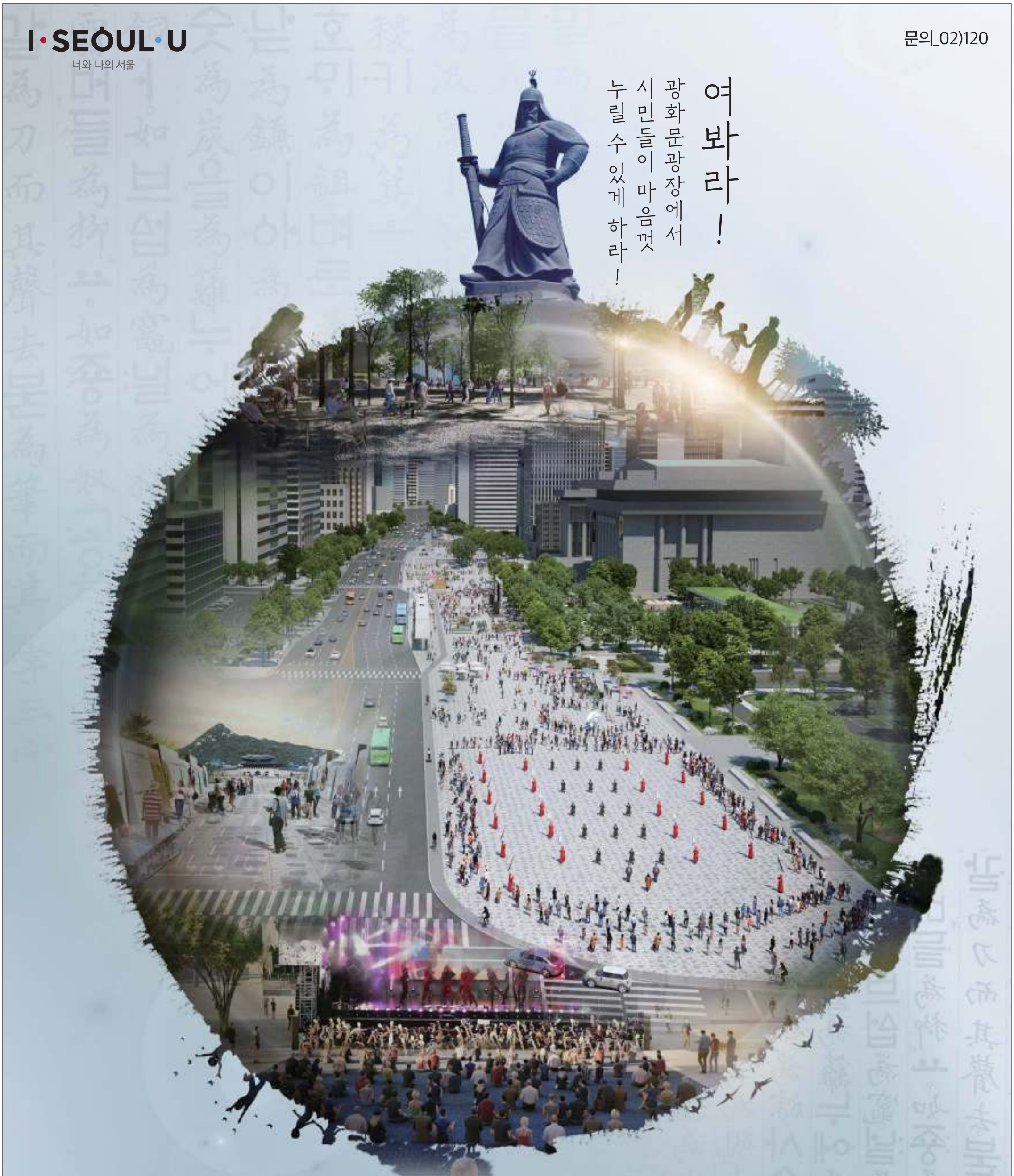
SKT는 올해 출퇴근 시간 10~20분 이내에 '거점 오피스'를 을지로, 종로, 서대문, 분당, 판교 등 5개 지역에 마련했다. SKT는 구성원 거주지 등을 분석해 거점 오피스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문의_02)120

여봐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라!



표현의 자유가 더 넓어지도록…
광화문광장에
진짜 광장을 심다

새 광화문광장
광화문광장이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연결되고,
서측 도로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새로운 광화문광장으로 거듭납니다.

집밥 덕분에… 식품업계 2조·3조 클럽 줄이어

롯데푸드·사조대림 가세 '2조 클럽' 11개로 늘어날 듯
CJ제일제당 최고 매출… 김치 인기 끈 대상 '3조' 무난

전세계적인 '집밥' 특수에 힘입어 식품기업이 잇달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침체된 가운데서도 식품 기업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식 대신 집에서 식사하는 이들이 늘어난 덕분에 선전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식품업계에서 매출 1조원을 달성하면 성공한 기업이라는 의미로 '1조 클럽' 가입의 상징적인 의미는 컸다. 그러나 최근에는 2조원이 넘는 매출을 거두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데다 올해 기록적인 집밥 인기로 '2조·3조 클럽' 달성을 눈앞에 둔 기업도 크게 늘었다.

◇2조 클럽 가입사 11개로 늘어나나= 18일 음료와 주류를 제외한 주요 식품기업의 3분기 누적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조 클럽 가입 기업이 최대 1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새롭게 2조 클럽 가입이 예상되는 기업으로는 롯데푸드와 사조대림이 꼽힌다. 롯데푸드와 사조대림은 3분기까지 1조원대 초반의 매출을 기록 중이지만 4분기 이어진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중국의 광군제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반영될 경우 2조 클럽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2조 이상 매출을 기록한 기업은 △CJ제일제당 △동원F&B △대상 △농심 △오뚜기 △풀무원 △오리온 △삼양사 등 9개사였다. 올해 새로운 2조 클럽이 탄생할 경우 식품업계 2조클럽 기업 수는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넘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에는 오리온과 롯데제과가 글로벌 매출 신장에 힘입어 2조 클럽에 새롭게 진입한 바 있다.

◇CJ제일제당 사상 최고 매출 '눈앞'= CJ제일제당, 동원F&B에 이어 세번째 3조 클럽 가입의 주인공은 대상이다. 대상은 중화권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K푸드를 적극 알린 결과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2조 3739억 원을 달성했다. 대상은 올들어 '종가집 김치' 등이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호실적을 기록중이어서 4분기에 올해 평균 분기 매출만 달성해도 무난히 3조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업체별 전년 총매출과 올해 3분기 누적 매출(단위: 억 원)

	2019년 총매출	2020년 3분기 누적 매출
CJ제일제당	22조3525	18조943
동원	3조303	2조4382
대상	2조9640	2조3739
농심	2조3439	2조7
오뚜기	2조3596	1조9677
풀무원	2조3815	1조7311
오리온	2조233	1조6523
롯데제과	2조930	1조5547
삼양사	2조964	1조5300
사조대림	1조3297	1조2934
롯데푸드	1조7880	1조3226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식품업계 맏형인 CJ제일제당의 사상 최대 실적 경신도 업계의 관심사다. 지난해 창립 이래 처음으로 연 매출 20조원을 돌파했던 CJ제일제당은 올해 매출 25조 원 달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4분기 분기 평균 매출만 거둬도 25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쉬완스 인수 효과와 언택트 소비 증가에 따른 CJ대한통운의 실적 상승, 집밥 증가에 따른 HMR(가정간편식)의 성장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면서 국내 대표 식품기업다운 면모를 과시할 전망이다. 글로벌 1위 식품기업인 네슬레의 100조 매출에는 크게 뒤지지만 몇년 전만해도 10배 이상 매출 차이가 났던 것을 감안하면 격차를 크게 줄인 셈이다.

◇라면·제과 순위 경쟁도 흥미진진=2조 클럽 내 라이벌 기업간 경쟁도 흥미진진하다. 농심은 국내외에서 라면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일찌감치 2조 클럽 가입을 마무리지었다. 농심의 지난해 매출은 라면 시장에서 경쟁하는 오뚜기에 150억 원 가량 뒤처졌으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로 오뚜기를 넘어섰다. 농심은 해외에서만 1조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며 3분기 누적 매출이 이미 2조 원을 가뿐히 넘겼다. 다양한 HMR을 보유한 오뚜기가 제품 포트폴리오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농심은 라면과 스낵만으로 오뚜기의 매출을 따라잡는 저력을 보이고 있다.

제과 라이벌인 오리온과 롯데제과도 매출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에는 롯데제과의 매출이 700억 원 가량 앞섰지만 올해는 오리온의 실적이 다소 앞선 상황이다. 양사의 3분기 누적 매출은 각각 1조 6523억 원(오리온), 1조 5547억 원(롯데제과)으로 70억 원 안팎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제과 1위 자리를 둘러싼 자존심 대결이 한창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김혜지 기자 heyji@

당근마켓·번개장터 이어 쿠팡도 가세?
20兆 '新중고시장' 열린다

동네 기반 당근, 주민 거래 신뢰
취향 기반 번개, 물건 종류 많아
쿠팡 시장 진출설에 "사실무근"

중고 시장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쓰던 낡은 물건을 값싸게 취급하는 곳으로 인식돼던 중고 시장이 불황 속 '실속형 소비'가 강조되는 추세 속에 합리적이면서도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신(新)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C2C(소비자간 거래) 시장 특성상 정확한 규모를 확인할 수 없지만 유통업계는 국내 중고 시장 규모(중고차 시장 제외)가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중고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국내 중고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곳은 당근마켓이다. '당신 근처의 마켓' 당근마켓을 통해 사람들은 거주지 반경 6km 안에 있는 사람들과 중고 제품을 거래한다.

택배보다 직접 만나서 물건을 사고파는 경우가 많다. '동네 주민'이라는 신뢰감을 바탕으로 기존 중고 플랫폼과 비교해 거래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근마켓은 전국 6000여 개 이상 지역에서 동네 주민들을 연결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당근마켓에 따르면 지난달(10월) 월간 순 이용자수(MAU)는 1200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올해 1월(480만 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당근마켓의 성장은 중고 시장의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중고 시장은 2003년 네이버 카페에서 시작된 '중고나라' 성장과 궤를 같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 플랫폼의 경우 사기 등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중고 시장에 부정적 이미지를 더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번개장터'도 중고 시장을 이끄는 주자 중 하나다. 2011년 서비스를 런칭한 번개장터는 한정판 스니커즈부터 캠핑용품, 피규어 등 각종 취미 용품과 빈티지 아이템, 아이돌 굿즈 등 개인의 '취미'와 '취향'이 드러나는 다양한 물품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취향 기반' 플랫폼이다.

당근마켓에 동네 기반 서비스라면 전국구 단위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이 번개장터의 특징이다. 따라서 희소성 있는 물품이라도 구하기 쉽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자체 에스크로 서비스(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제삼자에게 예치하다가 배송 완료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인 '번개페이'로 거래 안전성을 높인 점도 성장에 주효했다.

제품 수령 전까지 구매자의 돈을 번개장터가 보관하고, 제품 수령이 확인되면 판매자에게 입금해 사고 발생을 막는다. 번개페이 거래액은 2018년 출시 이후 매월 약 26% 늘었고, 올해 3분기 기준 거래액은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취향 기반', '전국구 플랫폼', '안전한 거래'라는 컨셉으로 번개장터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모바일 앱 분석 사이트 앱애니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쇼핑 카테고리 인기 차트에서 번개장터는 최근 한달(10월 10일~11월 9일)간 1위를 차지했다.

쿠팡은 2위를 기록했고 무신사와 올리브영이 각각 3, 4위로 뒤를 이었다. 번개장터의 10월 신규 가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86.3%로 대폭 증가했다.

연간 거래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6500억 원을 기록했던 거래액은 이듬해 8000억 원, 지난해 1조원을 기록했다. 올해 연간 거래액은 1조3000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통 시장을 흔드는 '메기' 역할을 하는 쿠팡이 중고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쿠팡 측은 중고 시장 진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다이아몬드보다 희귀 '탄자나이트 목걸이'

갤러리아백화점은 명품관에서 30일까지 스위스 하이주얼리 및 워치브랜드 '쇼파드'의 하이주얼리 전시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 대표 상품은 '아프리카의 푸른 별'로 일컬어지는 40캐럿의 탄자나이트로 만들어진 목걸이다. 탄자나이트는 전 세계에서 탄자니아 북부 국경지대에서만 산출되는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보다 1000배 이상 희귀한 광물이다. 이 목걸이는 탄자나이트와 1000개 이상의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루비 등이 최상의 기술력으로 세팅됐다. 가격은 목걸이 12억 원대, 귀걸이 1억 원대다.

사진제공 갤러리아백화점

유통업, 인력도 온라인 중심으로

▶1면서 계속

롯데쇼핑 관계자는 "점포 폐점은 인력 재배치가 원칙이지만, 마트나 슈퍼의 캐셔의 경우 제안을 해도 퇴사자가 많은 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말 2만5779명이던 직원 수가 올 들어 469명 감소했다. 이마트 역시 삐에로쇼핑과 부츠에 이어 PK피코크 매장을 정리 중이지만 SSG닷컴의 쓱배송과 새벽배송 사업 확장에 따라 온라인 사업 인력 채용이 늘었다. 이마트 신촌점과 안성 트레이더스 등의 오픈에 따른 고용효과도 반영됐다. 이마트 관계자는 "전문점 구조조정보다는 자연 퇴사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2월 동대문 면세점과 6월 대전 프리미엄아울렛에 이어 이달 초 남양주에 위치한 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점을 오픈한 현대백화점은 오프라인 유통 상장사 중 유일하게 일자리가 늘었다.

비상장사인 홈플러스 역시 이마트와 비슷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이 회사는 지난해 폐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511명을 감원한 바 있다. 최근 추진 중인 점포 매각 효과는 내년부터 임직원 수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자 이커머스들은 서둘러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2~9월 쿠팡의 신규 채용 인원은 1만 3744명이다. 이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 수 기준 1위 기업으로 2위인 한화솔루션(3025명), 3위 삼성전자(2895명)를 합친 수의 2배가 넘는다.

3분기 기준 쿠팡의 전체 직원 수는 4만 3171명으로 빅3 유통사 전체 임직원 수(5만4291명)보다 1만 명 적다. 소싱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에서 직고용한 결과다.

티몬도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두 자릿수 MD를 채용했다. 롯데쇼핑은 온라인 중심의 디지털 전환(DT) 전략으로 온라인 시대에 걸맞은 내부 전문가 양성을 서두르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물류센터 인력과 개발자 등 채용이 크게 늘었다"면서 "직고용으로 양질의 근로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엔 비싸져요" 롯데百 모피 박람회

롯데백화점이 2020년 마지막 세일을 맞아 한국모피협회와 협업해 22일까지 5일간 잠실점에서 400평 규모, 1000억 원 물량의 모피 박람회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진도모피와 우단모피, 국제모피, 에이드피요르 등 국내 브랜드부터 비니치오파자로, 블루말레 등 해외 브랜드까지 총 17개 브랜드가 참여해 세이블, 무스탕, 수입 모피 등 프리미엄 모피 등을 60~80% 대대적으로 할인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모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 유명 모피 옥션사 나파가 작년 영업을 종료했고, 코로나19 장기화가 밍크 농장에도 영향을 미쳐 최근 3년간 하락세였던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패션업계에서는 내년부터 모피 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상품으로는 진도모피 세이블 재킷 1600만 원, 팔로미노 휘메일 재킷 312만 원, 우단모피 후드코트 360만 원, 성진모피 폭스콤비 재킷 199만 원, 영모피 나우니스 밍크베스트 99만 원, 엘페 블랙그라마 휘메일 재킷 184만 원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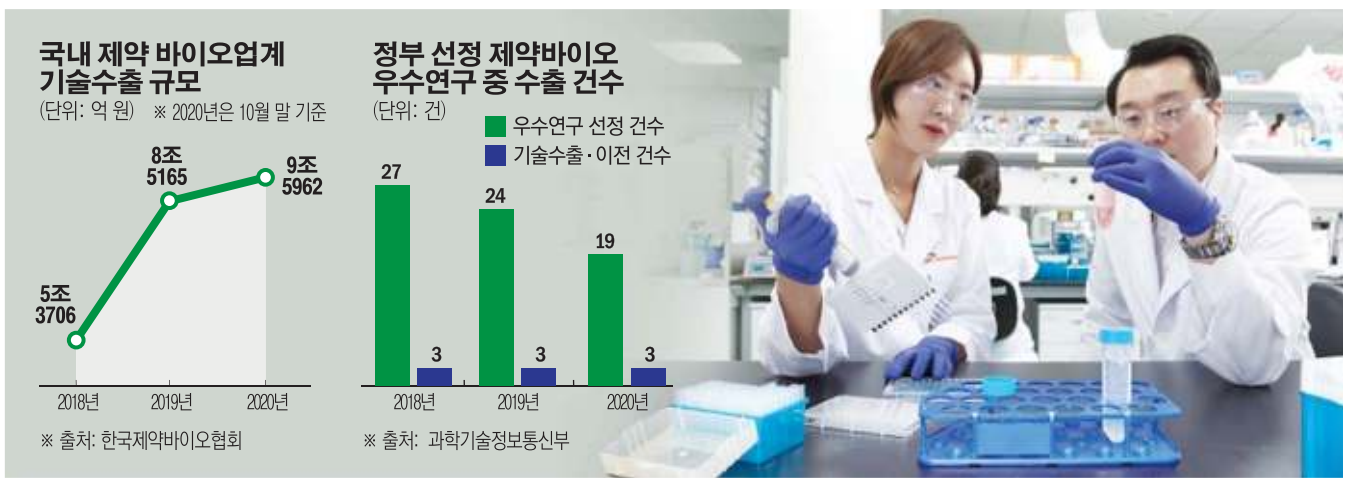
더불어 한정 특가 상품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여성 밍크 베스트와 재킷을 각 100만 원·150만 원(100개 한정)에, 빅사이즈 상품으로 비니치오파자로 롱코트를 250만 원(10개 한정)에 준비했다.

서승교 롯데백화점 잠실점 여성패션팀장은 "이번 행사는 내년에 모피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 세이블과 같은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K바이오 기술수출 '새역사'…정부지원 연구는 '제자리'

기술수출 매년 늘어 10조 육박
과기부 우수연구 수출 3건 불과
제약업계, 선정 기준 의문 제기
"사업성 평가·지속적 지원 부족"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연간 기술수출이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사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정부가 연구과제를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평가 기준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기술수출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총 12건으로 9조5962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는 총 13건, 5조3706억 원의 기술수출을 기록했고, 2019년에는 총 14건에 대해 8조5165억 원어치 기술수출 성과를 올려 매년 성장세를 이어갔다.

정부 지원을 받은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과제 중 우수연구로 선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최근 3년간 발표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가운데 의료·바이오 분야 비중은 2018년 27개, 1019년 24개, 2020년 19개로 집계돼 평균 23%를 차지했다.

과기부는 정부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개발(R&D) 과제 가운데 2006년부터 우수연구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100건의 우수연구 과제 선정에 각 부·처·청이 추천한 780건의 후보성과가 올라왔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위원회가 최종 100건의 우수성과를 선정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의료·바이오 분야가 주로 속하는 생명해양 분과에 들어오는 우수연구 사례는 매년 여타 분과보다 2~3배씩 많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매년 의료·바이오 분야에서 우수연구로 선정되는 건수는 적지 않지만, 기술수출이나 기술이전 성과로 이어진 사례는 매년 3건에 불과했다. 올해는 우수연구 가운데 SK바이오팜, 지아이이노베이션, 메디포럼제약의 성과가 기술수출·이전으로 이어졌다.

SK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한 성인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는 이번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서 생명·해양 분야 최우수 성과로 선정됐다. 세노바메이트는 국내 제약사가 후보 물질 발굴부터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까지 전 과정을 독자 진행한 최초의 신약이다. 세노바메이트는 지난해 스위스 제약사 아벨 테라퓨틱스와 유럽 32개 국가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달에는 오노약품공업과 기술수출 계약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며 일본 내 개발 및 상업화를 구체화했다.

2017년 설립된 비상장 신생 바이오벤처인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전임상단계의 신약후보물질 'GI-101'로 우수성과 100선에 꼽혔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1월 중국 제약사인 심시어와 9000억 원 규모의 이중융합 면역항암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국내 바이오제약기업의 중국 기술이전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메디포럼의 MF018(비마약성 진통제) 또한 기술이전과 식약처 임상 2상 승인이라는 성과를 올려 눈길을 끌었다.

우수연구로 선정된 의료·바이오 분야의 연구과제 중 기술수출·이전 건수가 제한적인 것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 방향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부처별 혹인 범부처 차원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업계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만한 기술인지 판단하는 혜안을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임상 데이터의 경우 기술수출이나 이전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사업성을 따지는 게 중요한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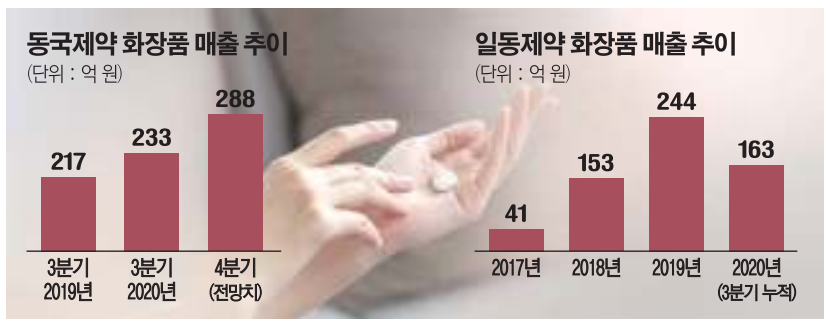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정부지원 과제를 선정할 때 초반에는 연구개발 기술 자체인 가능성만 보고 폭넓게 지원해주는 게 맞지만, 전임상 단계에선 사업성도 봐야 한다"면서 "기술수출이 시작된 지 5년에 불과하고, 지금 탄력을 받는 만큼 새로운 평가기준과 잣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연구비 지원 대상 선정에 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상무는 "연구과제로 선정돼 연구비를 받아 연구를 시행했지만, 기한 내 못 끝내면 해당 회사는 같은 주제의 연구에 대해 연구비를 더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대학이나 벤처기업은 기한 내 연구를 끝낼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설계하는 실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중복성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바이오 신약은 개발 기간이 최소 10년이 걸릴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관리 조직은 이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과제 수주 전 제안요청서(RFP) 선정을 위한 수요 조사 시 특정 시기 유행에 따라 편향된 주제가 선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바이오 신약의 개발기간이 길다는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개발 전략으로 범부처 과제 관리 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제약업계 '새 먹거리' 화장품 실적 희비



동국제약 매출 30% 성장에도
일동제약·동화약품 등 정체
진입장벽 낮지만 성과도 미미

제약업계가 새로운 먹거리로 진출했던 '화장품' 사업에서 업체별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화장품 사업은 신약 개발과 달리 적은 투자 비용으로 이른 시일 내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원료나 기능성 측면에서 제약업계의 강점을 살릴 수 있어 업계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주목받았다. 다만 화장품 사업은 트렌드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다 낮은 진입장벽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아직까지 화장품 사업 부문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는 제약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다.

제약업계 가운데 화장품 사업을 가장 활발히 펼치는 업체는 동국제약이다. 동국제약은 2015년 '마데카 크림'으로 화장품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던 '병풀 잎'의 유효 성분을 고순도 고농도로 추출해 화장품에 담은 마데카 크림은 출시 1년 만에 100만 개 판매를 돌파하며 인기를 끌었다.

18일 동국제약에 따르면 화장품 사업은 코로나19 여파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동국제약은 올해 3분기 화장품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7.3% 상승한 230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성장 폭이 더 크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성장한 770억 5000만 원을 기록했다.

동국제약의 화장품 사업은 4분기에 더 성장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이동건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마데카크림'은 4분기 계절적 성수기 진입이 기대되고,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 본격화에 따라 해당 사업부 매출의 고성장이 기대된다"라며 "4분기 매출액은 3분기보다 23.6% 성장한 280억 원으로 예상한다"라고 전망했다.

2017년 '퍼스트랩'이란 브랜드로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 일동제약은 성장 정체를 보이고 있다.

퍼스트랩은 사업 진출 초기인 2017년 41억 매출을 올린 데 이어 2018년 153억 원, 2019년 244억 원으로 매년 성장세를 이어갔는데 올해는 성장이 더딘 상황이다. 1분기 59억 원, 2분기 45억 원, 3분기 50억 원으로 3분기 누적 매출액이 163억 원에 그쳤다. 일동제약은 기존 브랜드와 제품군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신규 브랜드 론칭 등을 통해 화장품 사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화장품 브랜드 '활명'으로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 동화약품 역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노드스트롬 백화점을 시작으로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판매 채널에 진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글로벌 화장품 편집숍인 '세포라'에도 입점하는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으나 매출은 부진하다. 동화약품은 화장품 사업의 매출액과 신장률을 공개하지 않지만, 아직 전체 매출에서 미미한 상황이고, 성장이 더디다는 입장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최근 판매 채널의 변화는 없고, 사업을 내부적으로 재편 중"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지난해 화장품 브랜드 '파티온'을 론칭하며 화장품 사업에 진출했다. 제품 라인은 노화나 여드름 흉터 등을 관리하는 흔적 케어와 보습 케어, 남성 스킨케어 등 3가지로 구성했는데 아직 출시 1년인 만큼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지만, 마케팅을 확대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기존 파티온 브랜드몰에서 올리브영 등 H&B스토어 등으로 판매 채널을 넓히고 있다. 또 메디컬인텐시브 크림 엠디 등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성과가 없음에도, 제약업계의 화장품 사업 진출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화장품 시장 경기가 좋지 않고, 시장 특성상 트렌드 회전이 빨라 매출에 영향을 받았지만, 제약사는 의약품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화장품 성분 측면에서 차별화한 원료와 기능성, 오랜 기술력을 앞세워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수 있다"라며 "마케팅 확대, 판매채널 다변화를 통해 여전히 시장에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보령제약, 항암주사제 생산시설 'GMP' 인증

〈제조·품질관리〉

예산공장 내년 '유럽 GMP' 준비

보령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예산공장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에 대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적합 인증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보령제약은 예산공장 항암주사제 생산시설 GMP 인증을 획득하면서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벨킨주(성분명 보르테조밉삼합체)' 생산을 시작으로 시설을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은 연간 최소 600만 바이알(Vial)의 생산규모를 갖추고 있고, 필요 시 생산량을 3배 이상 확대할 수 있다. 보령제약 예산공장은 독일 NNE Pharmaplan사가 설계했고 지난해 4월 준공됐다. 지난 10월 내용고형제 GMP인증을 획득했고, 올해 초부터 내용고형제 생산시설을 가동 중이다.

예산공장 항암주사제 생산라인은 기준 심사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인증을 획득하며 생산시설 및 GMP운영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은 약리활성이 높은 의약품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최신의 '아이솔레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고도화된 GMP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보령제약은 2021년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에 대한 유럽GMP(EU GMP) 인증을 준비 중이고, 인증이 완료되면 항암주사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보령제약은 '항암제'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기존 항암사업본부를 ONCO(항암)부문으로 승격해 항암제 마케팅 영업 역량을 강화하고, 대형품목 인수 및 개량신약 개발 등을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박미선 기자 only@

셀리버리 '코로나 치료제' 영장류 실험서 완치 확인

셀리버리는 미국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감염 영장류 대상 'iCP-NI'의 치료효능 평가시험에서 코로나19 완치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셀리버리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완치 효능 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번 효능평가시험을 진행한 써던리서치 측 총 책임자인 제니퍼 피컨스 박사는 "코로나19 감염 원숭이들은 폐포 내 출혈 및 폐섬유화 등 염증소견들이 보였으나, iCP-NI를 1회 투여한 개체들에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임상증상 및 폐 염증소견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서에서 설명했다.

셀리버리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진입을 추진 중인 글로벌 임상시험수탁기관 코방스 측의 비임상 및 임상전략 자문관들은 현재까지의 영장류대상 효능평가 결과만으로도 미국 임상시험계획을 진행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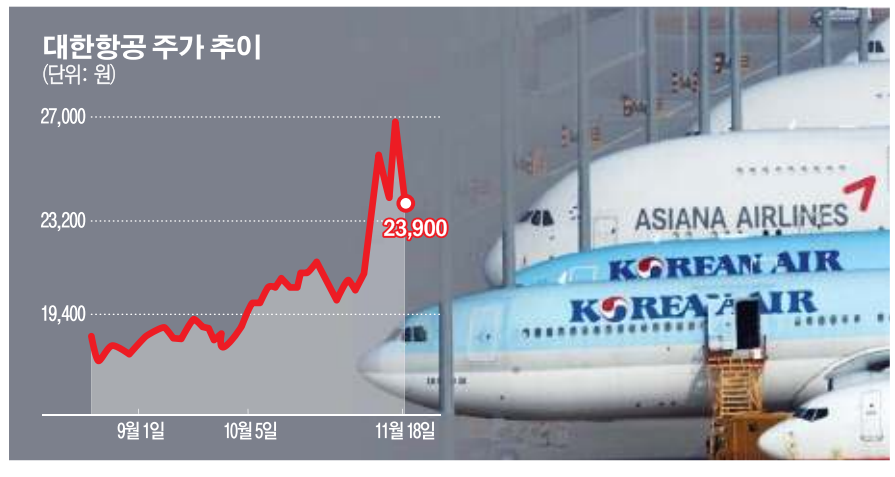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코로나19 중증이 되면 사이토카인폭풍으로 인한 중증염증 및 비가역적 폐 조직파괴를 막을 수 있는 치료제가 현재로선 없기 때문에 반드시 iCP-NI와 같은 내재면역제어 면역치료제가 필요하다"면서 "우리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증상완화제가 아니라 생명보존이 목적인 질병통제치료제"라고 설명했다.

셀리버리는 미국 FDA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속프로그램'을 통한 iCP-NI의 빠른 임상진입 및 치료목적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기관·사모펀드 '팔자'… 끝 보이는 한진칼 경영권 분쟁

사모펀드 이틀만에 141억 순매도
기관도 13일부터 302억 팔아치워
산업은행이 주요 주주로 부상하면 다른 지분 희석, 투자 매력 떨어져

노조, 조현아 '3자연합'에 등돌려
"조원태, 경영권 분쟁 사실상 승기"



산업은행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백기사'로 등장하면서 지분율 경쟁에 따른 한진칼 경영권 분쟁 사태가 사실상 종식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진칼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성공하면 조 회장은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한진칼의 경영권 강화, 대한항공 채무 1조 원 상환, 아시아나 경영권 63.9% 확보' 등 세 가지를 얻게 된다.

실제 두 회사의 합병 소식이 전해진 전후로 기관투자가 자금이 대거 이탈하며 한진칼 주가를 뒤흔들었다. 특히 강성부펀드 KCGI의 든든한 우군으로 꼽혔던 사모펀드가 이틀 만에 141억원을 순매도하며 자금 이탈을 이끄는 상황이다.

다만 막다른 골목에 몰린 KCGI가 기업의 장기 가치 제고 의지를 지속해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진칼 주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관들은 11일부터 한진칼 주식의 순매도로 돌아섰다. 10월 7일부터 줄곧 순매수로 일관하던 기관이 한 달 만에 순매도세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가 대한항공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13일부터 기관들은 30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평소 하루평균 순매수·매도 금액이 십억 원대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매도세다.

가장 많이 팔아치운 건 사모펀드 124억 원어치였고, 금융투자가 106억 원어치, 투자신탁이 4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산업은행의 증자로 KCGI주주연합의 경영 참여 발언권이 더욱 약해질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항공의 지주사 한진칼과 산은은 지난 17일 신주인수계약(5000억원)과 교환사채 인수계약(3000억원)을 통해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조달받는 내용의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식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KCGI는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과 연대한 '3자 주주연합'을 구성해 조 회장 측과 경영권 확보를 두고 대립해왔다. 현재 KCGI 등 주주연합의 우호 지분율은 46.7%,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은 41.4% 수준이다. 조 회장 개인 보유한 지분율은 6.52%다. 산은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5000억원 규모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지분율 10.66%의 주요 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기존 주주인 주주연합의 지분율은 약 42%로,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은 약 37%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주주의 지분은 희석되기 때문에 한진칼의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 부사장 측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한진칼 유상증자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 없이 사업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반대 명분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초기 인수합병에 따른 대규모 해고 우려감을 표명하던 대한항공노조마저 정부가 고용 유지를 약속하면서 3자연합에 등을 돌린 상황이다. 대한항공노조는 "항공업 노동자들의 최우선 과제는 채권자와 주주 권익 보호가 아닌 고용안정"이라며 "(3자연합의) 간섭은 분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자 연합에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시장은 산은에 협조하고 있는 조원태 회장 쪽으로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지분 약 10.7%를 확보함에 따라 조원태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다"며 "경영권 분쟁 종료에 따른 지분경쟁 프리미엄이 제거될 경우 주가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김우람 기자 hura@

토스증권 인가 획득… 12년 만에 새 증권사

국내 2호 '핀테크' 증권사… 이르면 연내 출범
"카카오페이증권보다 파급력 클 것" 업계 긴장

토스증권이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됐다. 핀테크로 무장한 새로운 경쟁업체의 등장에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토스증권(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2008년 인가받은 IBK투자증권·KTB투자증권 이후 12년 만에 새 증권사가 탄생하게 됐다. 이날 최종 의결에 따라 토스증권은 한 달 안에 영업할 수 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자회사인 토스증권을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공식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토스증권이 출범하게 되면 카카오페이증권에 이어 국내 '핀테크' 증권사 2호가 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토스증권이 카카오페이증권보다 업계에 미칠 파급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증권은 업계 예상과 달리 자산관리에 중점을 두며 현재 펀드상품만 판매하고 있다"면서 "(카카오페이증권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주식거래(브로커리지)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어 그간 기존 증권사들이 젊은 고객층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토스증권이 '토스'라는 플랫폼을 내세워 주식 브로커리지 시장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동학 개미 운동을 주도한 20~30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토스의 지난 10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는 18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20~30대 젊은 이용자층은 1000만 명에 달한다. 토스는 이번 인가로 이들이 토스 앱에서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스증권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토스준비법인' 직원은 현재 80여 명으로 이들 대부분 모바일 주식거래 시스템(MTS) 관련 개발과 고객지원 관련 부서에 소속돼 있다. 그만큼 개인 고객 주식거래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공모주 개인 물량 30%까지 확대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분

금융위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 발표

다음달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배정할 때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의 절반 이상을 청약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또 공모주의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을 현재 20%에서 최대 25%로, 내년 1월부터는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50%)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으로 청약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하게 공모주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균등방식 외 나머지 배정물량은 기존대로 청약증거금을 많이 낸 청약자에게 더 많은 공모주를 주는 비례방식으로 배정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을 현재 20%에서 내년부터 최대 30% 확대하기로 했다.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 중 미달물량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현재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은 유가증권시장 20%, 코스닥시장은 20%이내에서 우선 배정되도록 돼있다. 그러나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해 미달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사주조합 평균 배정물량은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시장 5%다.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미달물량이 5%미만인 경우에는 미달물량 전부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2014년 도입돼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우선 배정되는 10%물량 제도에 대해서도 우선 배정 물량을 5%로 줄이고 나머지 5%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는 2023년까지 유지한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보유하고 국내채권을 60% 이상 보유한 펀드를 말한다.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은 금지된다. 금융위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스템은 청약증거금 예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구축될 예정이다.

김하늬 기자 honey@

반도체 끌고 쇼핑·車 밀고…상장사, 3Q 매출 12% '쑥'

〈코스피〉

영업익 58%·순익 81% 상승… 코로나 피해 업종 실적 개선
누적 연결 기준으로는 여전히 부진… 코로나 재확산 불안도

국내 상장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다만 코스피 상장사 10곳 중 2.5곳(25.08%)은 여전히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이 '바닥'을 쳤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을 고려하면 4분기 이후에도 기업의 '고난의 행군'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590곳의 3분기 실적(연결 기준)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50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9% 늘었다. 수익성도 좋아졌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57.78%, 81.31% 늘어난 36조4000억원, 2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7.25%로, 지난해 3분기(4.35%)보다 2.87%포인트 좋아졌다. 1000원어치 팔아 72원을 벌었단 뜻이다. 상장사의 28.9%에 해당하는 148곳은 적자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2분기 대비 3분기에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은 기저효과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았던 업종(쇼핑, 자동차, 철강)들의 실적개선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3분기 누적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 매출액은 1440조5724억 원으로 4.77% 줄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79조 원, 51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79%, 9.44% 감소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빼고 보면 실적은 더 암울하다. 1년 전보다 매출은 5.73% 줄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8.84%, 21.61% 급감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3.36%로 뚝 떨어진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상장사 958곳의 3분기 누적 매출액(연결기준)은 142조81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 늘었다. 하지만 순이익은 14.98% 감소했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도 3.39%로 1년 전보다 0.68%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78%로 전년 대비 0.18%포인트 개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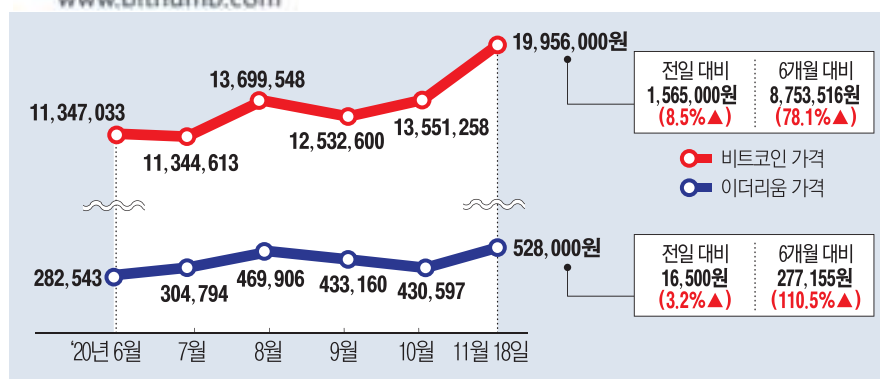
기업 실적은 일단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내년 실적 전망치가 있는 상장사(276개)의 영업이익 추정치 합계는 총 180조2114억원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역대 최고 이익을 낸 2018년 177조5323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코로나19 사태를 잘 견뎌낸 올해(130조4960억원)보다 38.1% 늘어나는 수준이다.

손엄지 기자 eoml@
유혜림 기자 wiseforest@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2020년 11월 18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271,100	-3,800 (1.4%▼)	이오스	2,880	-52 (1.8%▼)
리플	326	-4 (1.2%▼)	비트코인골드	9,770	1,185 (13.8%▲)
라이트코인	81,050	-150 (0.2%▼)	이더리움 클래식	6,340	225 (3.7%▲)
대시	88,750	-1,750 (1.9%▼)	퀀텀	2,370	43 (1.8%▲)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당신의 봄

왜 삼성화재 RC가 당신에게 좋은 RC일까요?

24시간 언제든 당신이 원하는 답을 드리고
꼭 필요한 솔루션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좋은 RC
당신에게 좋은 RC를 지금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삼성화재 RC만의 24시간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보장분석부터 가입, 관리, 보험금 청구까지
모바일로 편리하게!
전자서명 계약서로 환경보호까지!

보험정보 제공 → 보장 분석 → 상품 가입 → 보험 관리 → 보험금 청구

고객 서비스로 쌓은 신뢰 우수인증설계사 수 1위

장기유지계약, 장기근속, 신뢰도 평가 등으로
선정되는 손해보험협회 우수인증설계사
3명 중 1명이 삼성화재 RC (점유비 36.2%)

*20년 손해보험협회 발표 기준

*20년 우수인증 설계사 중
삼성화재 비율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1-2415호 (브랜드전략파트, '20.06.26)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秋, 평검사 보내 尹 감찰 시도… 검찰 반발

일정 조율 없이 대면조사 요구했다 무산… 법조계 "전례가 없는 일"
법무부 "일정 전하려던 것" 해명… 철회 밝히지 않아 강행 가능성도

법무부가 평검사 2명을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 조사 일정을 통보하려다가 무산됐다. 감찰 방식과 일정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신경전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관실로 파견된 평검사 2명을 전날 오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 일정 통보를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월요일(16일)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법무부 진상확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은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17일 오전 대검 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 의사를 알리고 오후에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 2명이 감찰조사가 아니라 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갔으나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평검사 2명이 들고 온 서류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면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예정서를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는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조사 철회 등의 방침은 밝히지 않아 조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에게 사퇴압박을 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면담조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한 노골적 망신주기가 극에 달한다는 말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감찰을 위해 사람을 부르는 게 당사자에게 굉장히 부담도 많이 가는 행동으로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한다"며 "부장검사 이상만 돼도 필요시에는 전화 진술이나 서면으로 진술서를 받는 경우도 많고 일반 검사를 감찰하려고 해도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사람을 보낸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번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윤대진 형 수사무마' 檢 국세청 압수수색

공소시효 4개월 남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세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전산실에서 전산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서장이 2010년 근무한 곳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 접대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골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했다.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송환된 뒤에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동생인 윤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윤 총장에 대한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라임 관련 검사 등의 비위·수사 은폐 의혹과 함께 윤 전 세무서장 관련 사건도 보고받거나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윤 전 서장 사건의 공소시효는 4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전두환 5년째 지방세 10억 밀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147억' 오문철 4년 연속 최고액

정부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에만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032명에 이르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5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18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에 지방세 신고·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와 각 지자체 시·도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체납자 1만5032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과거 유력 인사들이 대거 체납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전 씨는 2016년부터 5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액은 9억7400만 원으로 1년 새 약 5000만 원이 늘었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146억 8700만 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다. 2017년부터 4년 연속으로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그는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뒤를 이어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조 전 부회장은 주민세 83억25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지방소득세 79억 9200만 원을 체납한 김상현 씨다.

법인 중에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억1400만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지에스건설(167억3500만 원), 삼화디엔씨(144억1600만 원), 케이디알앤디(118억400만 원)가 그 뒤를 이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별 체납액 (단위: 만 원, 11월 17일 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20-1680호

도시관리계획(등촌동 365-27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강서구 등촌동 365-27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①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②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2600-6846)
③ 열람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등촌동 365-27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강서구 등촌동 365-27번지 일대	-	증)45,424.7	45,424.7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5)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④ 열람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 진행(업무추진) 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재영 건설산업연구원장·심사위원장〉

"코로나 위기 속 건설업 발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올해로 4회째 맞은 스마트 건설대상
대림 '옥정 메트로포레' 등 12개 선정
윤성원차관 "경제 재도약 견인차 되길"

18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이투데이 사옥에서 열린 '2020 이투데이 스마트 건설대상' 시상식에서 윤성원(왼쪽 위) 국토교통부 차관과 심사위원장인 이재영(왼쪽 아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이 각각 축사와 심사평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행사 참석자들이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의 인사말을 경청하는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올 한 해 한국 건설산업의 성과를 모아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0 이투데이 스마트 건설대상' 시상식이 18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이투데이 사옥에서 열렸다. 이투데이는 건설산업 각 부문 수작(秀作)을 발굴해 공로자를 격려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해마다 스마트 건설대상을 열고 있다.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는 "행사가 화려하진 않지만 건설산업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건설산업이 위기의 문턱을 넘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며 "건설산업이 더 스마트해져 한국 경제 재도약의 든든한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수상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 혁신 지원 등을 약속했다.

올해는 12개 작품이 최종 수상작에 올랐다. 학계와 산업계,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가 작품성과 기술성, 경제성 등을 검증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재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어렵고 국내외 건설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 올해로 4회를 맞은 이투데이 스마트 건설대상은 위기를 주도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건설업계의 다양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시상식 최고 상인 종합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작으로는 대림산업이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 지은 'e편한세상 옥정 메트로포레' 아파트가 선정됐다. 단열 설계와 소음 절감 시스템, 층간소음 저감 기술 등 주거 혁신 기술을 적용해 시공한 데다 넓은 녹지를 확보해 주거 쾌적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혁신 기술을 대거 도입하고 편의시설 확보 등 주거의 쾌적성까지 높인 우수한 단지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일자리 우수기업 부문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은 펨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가, 산업혁신 부문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 쌍용건설에 돌아갔다. 각각 직원 복지와 BIM(빌딩정보모델링)·드론 건설 기술 등에서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한화건설은 협력사의 성장에 힘쓴 공로로 동반성장 우수 부문 대상(동반성장위원장상)을 받았다.

부문별 수상작으로는 △대우건설 '청라 푸르지오 라피아노'(브랜드 부문) △HDC현대산업개발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조경 부문) △GS건설(사회공헌 부문) △SK건설 '구미 연료전지 제조공장'(친환경 부문) △현대건설 '카타르 루사일 타워'(해외건설 부문) △롯데건설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설계혁신 부문) △금호산업 '경산 하양 금호어울림'(커뮤니티 부문) △서울주택도시공사(SH) '위례지구 18단지'(주거 혁신 부문) 등이 선정됐다. 박종화 기자 pbell@

종합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 'e편한세상 옥정 메트로포레' DAELIM

쾌적한 주거환경과 첨단기술의 조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쾌적함을 갖춘 단지."

대림산업이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 공급한 'e편한세상 옥정 메트로포레'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다. 심사위원들은 최근 들어선 신축 아파트에선 찾아볼 수 없는 높은 녹지율과 낮은 건폐율을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여기에 대림산업만의 주거 혁신기술까지 더해졌다. 대림산업의 특허 받은 단열 설계와 소음 절감 시스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 적용된 e편한세상 옥정 메트로포레가 '2020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종합대상을 받은 이유다.

대림산업이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 공급한 e편한세상 옥정 메트로포레는 24개 동, 총 2038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쾌적한 환경이다. 심사위원들이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언급할 정도로 이곳은 높은 녹지율(46%)과 낮은 건폐율(13.7%)을 자랑한다.

건폐율은 건물 1층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건축 밀도를 뜻한다. 건설사들은 일반적으로 20~30% 수준의 건폐율을 적용해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 e편한세상 옥정 메트로포레는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의 건폐율을 자랑한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여유 공간은 그만큼 더 많아진다. 아파트 동 간 거리도 길어져 통풍, 채광 등 쾌적한 주거환경과 사생활 보호까지 가능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최근 주요 건설사는 건폐율 낮추기 경쟁에 나섰다. 건폐율이 낮으면 단지 내 녹지공간이 많아지고 이는 곧 해당 단지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e편한세상 옥정 메트로포레의 녹지율은 46%에 달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아파트 녹지율은 1983년 이전에는 48% 수준이었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23% 수준까지 떨어졌다. 서울 내 구축 아파트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의 녹지율을 자랑하는 셈이다.

아울러 이 단지는 대림산업의 상징성과 기술력을

대표하는 단지다. 집안 곳곳에 대림산업만의 특화 기술이 적용됐다. 가구 내 모든 면에 끊김 없는 단열 설계를 도입해 결로와 에너지 손실을 줄였다. 모든 창호에는 이중창 시스템을 적용해 외부 소음과 냉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거실과 주방 공간의 바닥에 침실(30㎜)보다 2배 두꺼운 60㎜ 층간소음 저감바닥재를 사용하는 획기적인 층간소음 저감 기술도 적용됐다.

또 e편한세상 옥정 메트로포레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 브랜드 리뉴얼을 처음 적용했다. 커뮤니티와 단지 곳곳에 e편한세상 리뉴얼 BI(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컬러를 적용해 더욱 고급스럽고 세련된 단지 분위기를 연출했다.

좋은 입지와 풍부한 배후도 갖췄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연장 옥정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지난해 6월 세종포천고속도로 중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이를 통해 양주신도시에서 구리까지 20분대, 서울 강남권까지 약 4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조성이 확정돼 배후수요도 기대된다. 경기도는 양주역 인근에 사업비 2635억 원이 투입해 섬유와 패션, 전기, 전자분야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할 예정이다. 완공 이후에는 2만3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1조 8759억 원의 경제효과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용욱 기자 dragon@

일자리우수기업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 '펨코CM' PEMCO ENGINEERING & ARCHITECTURE

성과 보상·복지 차별화…직원·회사 함께 성장

건설업계에서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하 펨코CM)는 직원들의 기를 살려주는 '일하기 좋은 회사'로 유명하다.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경영으로 갖가지 성과 보상 제도를 마련해 실천하고 있어서다. 펨코CM이 그동안 받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일생활균형캠페인 참여기업 인증, 우수 중소기업 선정과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이 이를 방증한다.

펨코CM은 '일하는 재미와 성장하는 즐거움이 있는 행복한 회사'를 사명으로 세웠다. 회사와 직원의 동반성장이 최우선 목표다.

'2020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일자리 우수기업 대상으로 받은 펨코CM은 직원들이 제대로 된 쉼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결혼 휴가, 리프레쉬 휴가, 장기근속 휴가, 유급 병가, 무급 휴직, 장례 휴가 등을 보장한다. 연휴 사이에 일 해야 하는 날인 블록 휴일(Block Holiday)에는 눈치를 보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가로 공식 지정해주는 공동연차도 시행하고 있다. 2년 이상 근속자라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한 '펨코프리'를 통해 국·내외 여행비를 지원한다.

펨코CM은 직원들의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해 대출제도도 도입했다. 또 설·추석 명절 귀향비와 자기계발을 위한 업무 관련 교육비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극 장려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있다. 기술력이 출중한 직원들이 직접 개발해 특허를 취득한 기술을 실제 제품에 적용 중이다.

현재까지 △실내체육시설 마룻바닥 시공방법과 청소가 용이한 공동주택의 배수관 연결장치 △복층 단열재를 구비한 피로티 슬래브 구조 △철근 콘크리트 공사용 파이프 서포트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친환경 주차장 시공방법 등 많은 특허가 탄생했다.

사원들의 효율적인 일처리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협력업체와 함께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을 직접 개발해 보고체계를 간소화하고 있다. 시스템에 내

장된 메신저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면서 개인적인 메신저 사용을 줄여 일과 사생활의 경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원들의 문화 여가생활을 위해 휴가 비용과 함께 전국에서 이용이 가능한 콘도나 복지시설을 제공 중이다.

사업 종료 이후에는 유휴기간 동안의 장기휴가를 의무화해 재충전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직원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동종업계 타사들과 차별화한 복지 제도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회사의 확고한 기업철학이기도 하다.

펨코CM은 여가생활뿐 아니라 자기발전을 위한 임직원의 역량 개발과 성과 보상 제도를 운영해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입사원 멘토링 제도를 시행 중이다. 팀장급 직원들을 멘토로 지정해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이다. 신입사원들의 업무환경 적응과 현업 이해도 제고, 안정적인 회사생활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신입사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펨코CM은 이 외에도 구성원 개개인이 강한 내적 동기를 찾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 상여금, 장기근속자 포상, 우수사원포상, 우수사원 해외 건축기행 등 다양한 성과보상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

3D 입체 설계로 비용 절감…드론이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산업혁신 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스마트 건설 기술' 쌍용건설

쌍용건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올해 스마트 건설 기술 현장 적용에 박차를 가했다. 쌍용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평면 설계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3D 입체 설계 시스템인 BIM(빌딩인포메이션시스템·3차원 정보 모델 기반 건축물 공정관리) 기술을 도입해 현재까지 40개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액션캠과 드론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챙기고 건설 현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우리나라 건설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올해 쌍용건설이 이투데이 건설대상 '산업혁신부문' 대상을 받은 이유다.

쌍용건설은 현재 약 40개 프로젝트에 BIM을 성공적으로 적용해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BIM 기술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원가와 공정, 유지관리 등 건축물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평면이 아닌 입체로 건물 정보를 파악해 건물 설비 교환주기를 파악하고 에너지 소비량과 단열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설계 변경 요인을 줄여 공사 기간을 줄이고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쌍용건설은 그동안 두바이 최고급 건축물인 로얄 아틀란티스 호텔과 싱가포르 WHC 병원, 서울 마곡 넥센타이어 R&D센터, 루이뷔통 플래그십 청담 등 다양한 현장에 BIM기술을 도입해 성과를 거뒀다.

쌍용건설은 한발 더 나아가 호남고속철도 시공 과정에 국내 최초로 '5D BIM 방식'을 도입했다. 현장 토목 공사 시뮬레이션과 자재 물량, 각종 투입 장비의 동선과 대수는 물론 준공 후 고속철도의 가상주행까지도 미리 확인하면서 공사를 진행했다.

쌍용건설은 BIM기술뿐만 아니라 액션캠과 드론을 통해 건설 현장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촬영 영상을 바탕으로 주변 작업 여건을 고려해 중장비를 배

치하고 근로자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현재 운영 중인 액션캠 LTE 현장관리 시스템은 사무실과 작업현장의 거리가 멀고 여러 곳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건설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핵심공정과 고난도 공사, 위험 공사 관리에 효과적으로 쓰일 전망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액션캠 LTE 현장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후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건설현장에서는 사물인터넷, 드론, BIM 등 첨단 기술 도입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밖에 QR코드(퀵리스폰스코드·격자무늬의 2차원 코드)를 활용해 근로자들의 시공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디지털 공사관리 플랫폼'으로 두바이 로얄 아틀란티스 리조트 & 레지던스 현장에 적용됐다. 기존 QR코드는 자재관리 용도에 그쳤지만, 사용 용도를 확장해 건설 공정 관리 전반에 도입했다.

디지털 공사관리 플랫폼은 스마트기기용 앱으로 건물 벽면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공정종류별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검측 결과 코멘트 달기와 사진 기록, 선행 작업 완료 직후 후속 공정 책임자에게 알람 전송 등 클라우드 데이터를 활용해 도표나 그래프로 시각화할 수도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QR코드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이고 업무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해외건설 대상 '카타르 루사일 타워' 현대건설

첨단 공법으로 50℃ 폭염에서도 공기 단축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카타르 사막. 평균기온 40~50℃의 폭염에도 현대건설 직원들은 카타르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 카타르 루사일 타워가 그 주인공이다. 현대건설은 루사일 타워 뿐 아니라 카타르를 대표하는 국립박물관을 비롯해 지역 랜드마크 건축물 등 다수의 건설사업을 수주 및 이행하며 우수한 해외 사업 실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현대건설은 새해 시작과 함께 카타르 루사일 타워의 수주 소식을 알렸다.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빈틈없는 설계, 공정, 품질, 안전 관리를 통해 공사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야적장에는 철골·철근 등이 무더기로 쌓여있고 대형 화물차들이 바쁘게 자재를 수송 중이다.

'2020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해외건설 부문 대상을 받은 카타르 루사일 타워는 카타르 부동산 개발회사가 발주한 약 6093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하 5층~지상 70층짜리 고층 오피스 빌딩과 포디움을 구성하는 상가 등 주변 부대시설이 포함된다. 루사일 플라자 타워는 3구획(PLOT3) 공사와 약 6130억원 규모의 4구획(PLOT4) 공사로 이뤄진다.

카타르 루사일 시티 내 금융지구에 총 4개 구획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의 1,2구획은 현지 건설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3, 4구획은 현대건설이 단독

수주해 시공 중이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34개월로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착공에 들어간지 불과 10개월도 채 되지 않아 현대건설은 10층 공사에 돌입했다.

빠른 공사 속도의 비결은 내부 골조와 외부 골조를 분리 시공하는 코어(Core)선행공법이다. 코어 선행공법은 고층 건축물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코어(계단실·엘리베이터홀 등)를 먼저 시공하고, 외부 철골구조를 나중에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초고층 건축물 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아웃트리거(out-trigger) 공법도 도입됐다. 아웃트리거 공법은 한 개 층에 철골-콘크리트로 벨트를 만드는 방식이다.

문선영 기자 moon@

조경 대상 '월계센트럴 아이파크' HDC 현대산업개발

단지 안에 연못…공원형 조경특화 공간 조성

'여기가 공원이야, 아파트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조성한 '월계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처음 받는 인상이다. 월계센트럴 아이파크는 주변의 대자연을 단지 안에 연계시키면서 뛰어난 조경을 효과적으로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아 '2020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조경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월계동 월계2구역을 재개발해 지은 월계센트럴 아이파크는 초안산 근린공원과 중랑천의 녹지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밖에서 안으로 이어지는 특화설계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표현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녹지공간을 확대 적용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입주민과 자녀들은 단지 내 조성된 공원에서 연못과 자갈, 나무들을 통해 계절별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다. 자연과 연계한 공간을 단지 안으로 끌어들이며 한 단계 진화한 조경 특화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 북측으로 형성된 초안산 근린공원에는 캠핑장, 경춘선숲길, 잣나무 힐링 숲, 유아숲 체험장, 모험놀이터 등 주요 명소들이 있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또 남측의 월계근린공원, 서쪽에 위치한 북서울꿈의 숲까지 다양한 녹지공간을 누릴 수 있다. 중랑천

생태하천을 따라서는 산책과 조깅, 자전거 라이딩 등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강북권 최초로 단지 내 전망라운지도 조성했다. 입주민들은 지상 20층(2개 동)과 29층(1개 동)에 있는 휴식공간 겸 전망라운지에서 초안산과 월계근린공원, 중랑천 등의 사계절 다른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월계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형, 859가구로 구성됐다. 단지 중심에서 1호선 월계역 3번 출구까지 직선 200m 거리로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이정필 기자 roman@

설계혁신 대상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 롯데건설

부분 임대 가능한 분리형 평면설계 적용

롯데건설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일대에 짓는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 아파트는 트렌드에 발맞춘 단지 조성과 평면 설계가 장점으로 꼽힌다. 채광과 통풍에 충실한 설계, 친환경 공간 조성, 부분 임대가 가능한 분리형 특화 평면 등이 눈길을 끈다. 롯데건설은 이 단지로 '2020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설계혁신 부문 대상을 거머쥐었다.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는 모든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고 판상형 중심으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대면형 주방 설계로 개방감도 극대화했다. 전용면적 84㎡D와 107㎡에는 별도의 테라스를 제공해 공간 활용성을 크게 높였다. 일부 세대의 경우 분리형 특화 평면 적용으로 부분 임대가 가능한 차별화된 설계가 가미됐다.

무엇보다 이 단지는 조경면적 비율이 37%에 달하는 친환경 단지로 조성된다. 최근 우리의 삶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이 일상으로 자리잡고, 쾌적한 자연 친화적 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트렌드에 맞게 블록별 단지 중앙에는 조경과 어우러지는 중앙광장이 들어서고, 수

경시설과 가로수길이 있는 '골든에비뉴', 특화 정원 '플로라테라스' 등 풍부한 녹지 환경이 조성된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플레이가든'과 '키즈가든'의 설계도 빼놓지 않았다. 리뉴얼된 '롯데캐슬 3.0' 디자인도 적용된다. 롯데캐슬 3.0은 간결함과 실용성, 젊은 감각을 부각시킨 게 특징이다. 랜드마크동 옥상에 롯데캐슬만의 특화 경관구조물인 '메가프레임'을 적용해 멀리서도 롯데캐슬 단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는 지상 최고 20층, 17개동 1251가구로 조성된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주거혁신 대상 '위례 포레샤인 18단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외벽 마감까지 주부 자문단 의견 적극 반영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은 위례신도시 위례 포레샤인 18단지는 주부 관점의 인테리어를 적용한 아파트다. 설계자와 시공자, 주부 프로슈머가 함께 참여하는 '인테리어 자문회의'를 세 차례나 개최해 최신 트렌드는 물론 주부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 모든 가구가 기존 임대주택보다 큰 면적으로 설계됐다. SH공사는 '2020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이같은 부분을 높이 평가받아 주거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위례 포레샤인 18단지는 지하 2층~지상 22층짜리 총 685가구 규모 아파트로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중 하나로 공급됐다. 주택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위례신도시에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조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이 단지는 인테리어 자문회의는 물론 모든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외벽 마감 수준 및 색채계획 향상을 위한 디자인 자문회의'도 두 차례 열었다.

단지는 자연과 사람, 역사, 도시를 잇는 위례신도시의 개발 전략을 그대로 가져와 디자인 콘셉트로 선정했다. 주민교류 활성화와 도시공간, 역사와 전통, 자연

과 사람을 '잇는'것에 초점을 맞췄다. 아파트 입면 디자인 요소도 조각난 천을 모아 만든 조각보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차용했다. 다양한 계층의 공간 복지를 위해 우선공급 150가구(노부모 부양자·3자녀 이상 가구·저소득 근로신혼부부)와 주거약자를 위한 55가구가 들어섰다. 기존 임대주택 보다 큰 전용면적 74·84㎡로 모든 가구가 설계됐다. SH공사 측은 "코로나19 사태 등 대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사 준공 및 입주를 적기에 완료해 공공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협력사 210곳과 공정거래 협약… 4년 연속 동반성장 우수기업

동반성장우수 대상(동반성장위원장상) '협력사 상생 추구'

한화건설

한화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올해로 4년 연속 '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와 우수, 양호, 보통의 4개 등급으로 나뉜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내로라하는 건설사들이 예상 외로 낮은 등급을 받거나 4개 등급을 오가며 부침을 보일 때 한화건설은 꾸준히 높은 등급을 유지했다.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그 만큼 일관되게 이어졌다는 의미다. '2020 스마트 건설대상'에서도 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한화건설이 동반성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공정거래 문화 정착', '협력사 역량 향상', '협력사와 소통강화'. 한화건설의 동반성장 정책에서 빠질 수 없는 세 가지 키워드다. 가장 대표적인 노력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이다. 공정거래 협약이란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세부 방안을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속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건설은 올해 5월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체결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협력사의 의견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해 사규에 반영했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준법경영와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협력사의 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금융자금 지원

제도도 운영 중이다. 동반성장 자금 직접대여를 비롯해 동반성장 펀드 조성, 신용보증 지원, 네트워크론 등이 대표적이다. 동반성정 자금 대여는 우수협력사의 운영자금을 한화건설이 직접 대여하는 제도다. 동반성장 펀드는 한화건설과 은행이 조성한 펀드로 운영자금을 대출한다. 네트워크론은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한화건설은 지난 2018년 일자리 창출 우수 협력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는 1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상생펀드'를 추가로 조성했다. 올해에는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우수협력사에게 총 100억 원 규모의 '패밀리기업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우수협력사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현장간담회와 공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사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 한화이글스 경기 응원과 한화 교향악축제 관람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빼놓지 않는다.

그 외에도 상생협력 전담부서 운영, 해외 동반진출 기회 제공, 경영닥터제 지원, 연구과제 공동수행, 협력사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신용과 의리의 한화정신을 근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파트너와 동반성장하는 상생 경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사회공헌 대상 '사회공헌'

GS건설

저소득층 공부방 꾸며주고, 청년·어르신 주거개선

"열악한 여건에도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은 지켜져야 합니다."

2011년 GS건설은 첫 '꿈과 희망의 공부방'을 선보였다. GS건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인 꿈과 희망의 공부방은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들에게 안정된 학업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공부방의 도배, 창호, 조명 등을 개선해주는 것은 물론 책상, 의자, 침대, 옷장, PC 등 물품과 학습비도 지원한다. 공부방 지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도 지급한다.

GS건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이 사업은 올해로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1년 5월 1호를 시작으로 2013년 6월 100호를 오픈했으며, 2016년 11월 200호점을 완공했다. 지난해 말 290호점까지 오픈하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GS건설은 건설사 특성을 살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청년과 나 홀로 어르신을 연결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부산청년 쉐어하우스 '동거동락(同居同樂)' 조성사업을 부산시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 공유경제 촉진사업인 쉐어하우스 조성사업은 부산시가 2017년 7월 사회공헌사업으로 제안했으며, GS건설은 단순 봉사활동이 아닌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5000만 원은 지난 8월 부산시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접수 처리됐으며, 시보조금 1000만 원을 더해 6000만 원으로 1차 시범사업이 추진됐다. 이런 사회공헌 활동으로 GS건설은 '2020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GS건설 관계자는 "공유경제 관점에서 접근해 나 홀로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사는 주거 공유사업을 통해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삶에 활력을 높이는 모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선영 기자 moon@

브랜드 대상 '청라 푸르지오 라피아노'

대우건설

'그린·크린' 친환경 철학 담은 진정한 '마이 홈'

'나에 가까운 본연의 모습에서 누리는 세련된 편안함.' 대우건설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의 철학이다. 자연 속에서 누리는 쉼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요즘 푸르지오 브랜드의 방향성은 더 부각된다. 대우건설이 인천 서구 청라동 일원에 짓는 '청라 푸르지오 라피아노'가 '2020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브랜드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유다.

대우건설은 지난 1994년 '그린홈, 크린아파트'라는 주거상품을 내놓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파트에 환경 개념을 도입했다. 그 친환경 철학은 2003년 푸르지오 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사람과 자연, 환경이 하나된 생활문화공간을 의미하는 푸르지오는 지난해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탄생했다. 새 푸르지오의 철학은 본연이 지니는 고귀함, '더 내츄럴 노빌리티'다.

브랜드 리뉴얼에 인지도는 더 높아졌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가 해마다 연말에 진행하는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2018년 8위에 그쳤던 푸르지오는 지난해 5위로 세 단계 뛰어오르며 약진했다.브랜드 파워는 새 아파트 청약 경쟁률로 이어졌다. 지난 2월 경기도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1순위 청약엔 총 15만6505명의 청약자가 줄을 섰다. 평균 경쟁률이 무려 146대 1에 달했다.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분양한 '대치 푸르지오 써밋'은 당시 기준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평균 경쟁률인 168.1대 1를 기록했다. 높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올해 대우건설은 총 3만5509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청라 푸르지오 라피아노는 총 354가구 규모의 게이티드 커뮤니티 하우스로 지어진다. 게이티드 하우스는 아파트와 주택의 장점이 더해진 주거 상품으로 단독주택처럼 여유로운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 일곱 가지 평면 타입 중 원하는 평면을 선택할 수 있고, 타입별로 전용 가든, 테라스, 루프탑 등이 설계된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친환경 대상 '구미 연료전지 제조공장'

SK건설

'세계 최고효율 연료전지' 생산… 그린뉴딜 첨병

SK건설이 친환경 산업에서 강자가 되겠다는 꿈을 펴고 있다. SK건설이 18일 열린 '2020 스마트 건설대상' 시상식에서 친환경 부문 대상을 받았다.

SK건설은 경북 구미시에 연료전지 공장을 짓고 올 7월부터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생산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미국 연료전지 회사 블룸에너지와 합작회사를 세웠다. SOFC는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추출,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다. 기존 연료전지보다 설치 면적이 작고 발전 효율이 높다.

현재 구미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SOFC 총 용량은 연간 50MW(메가와트). SK건설은 2027년까지 구미 공장 생산력을 연(年) 400MW까지 늘리겠다고 계획 중이다. 구미 공장이 SOFC 국산화와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란 게 SK건설 기대다.

SK건설은 친환경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조직도 개편했다. 에너지 기술부문을 신에너지 사업부문으로 개편해 연료전지 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디지털화(化)·친환경화와 순환경제(폐기물을 친환경·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

는 사업)을 맡을 친환경 사업 부문도 신설됐다. 초대 친환경 사업 부문장은 안재현 사장이 처음 맡았다.

SK건설은 지난달 경남 창원 스마트 산단 에너지 자급 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면서 조직 개편 후에도 성과를 이어나갔다. 연료전지와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RE100(신재생에너지로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실증사업이다.

박종화 기자 pbell@

커뮤니티 대상 '경산 하양 금호어울림'

금호산업

육아·교육·놀이 삼박자 갖춘 '어린이 특화단지'

어린이 특화 단지. 커뮤니티 부문 대상을 받은 금호산업이 경북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경산 하양 금호어울림'에서 꿈꾸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금호산업은 경산 하양 금호어울림 아파트 단지 내 유아 지원시설을 법정(法定) 면적보다 70% 넓게 설계했다. 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문을 열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에도 어린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서관과 실내 놀이 공간 등이 들어선다. 금호산업은 실외 놀이터에서도 차별화를 시도했다. 예술마을과 모험의 숲, 꼬마 캠프 등을 주제로 한 테마 놀이터 세 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야외 놀이터에는 디지털 CCTV와 동체 감지기를 설치해 어린이들 안전을 확보한다.

실외 공간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원처럼 꾸며진다. 단지 중앙엔 소원 광장이 조성되며 솔빛 마당과 피톤치드 마당, 물빛 마당(수경 공간) 등 다양한 테마 공간이 마련된다. 조경 공간 속에서 입주민이 휴식하고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티 하우스와 키즈스테이션, 에코 팜(텃밭) 등도 조성된다.

금호산업은 이외에도 골프연습장과 GX룸을 갖춘

피트니스센터와 독서실,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계절창고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 단지를 차별화할 예정이다.

금호산업이 이처럼 경산 하양 금호어울림에 공을 들이는 건 이 아파트가 경산에서 처음으로 '어울림' 브랜드가 붙는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경산 신도심이자 교육 환경이 뛰어난 하양택지지구에 자리 잡는 만큼 지역 특성을 살릴 필요성도 있었다. 경산 하양 금호어울림 인근에 유치원과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박종화 기자 pbell@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Hope. Together.

고맙습니다. 희망을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으로 같이가게' 캠페인에 참여한 하보리 떡방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막막한 상황에서
'희망으로 같이가게'는 버틸 수 있는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계기로 난생처음 시작해본 온라인 판매,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의 두근거림, 그리고 감사함과 더불어
천천히 조금씩 성장하는 매출 덕분에 이렇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셨던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온라인 판매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소상공인과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희망으로 같이가게' 캠페인 참여자 이정인 드림

'희망으로 같이가게'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소상공인분들을 응원합니다

용산떡방앗간. 케이푸드바이오. 오!은하수공방. 부각마을. 제이에로스. 119레오. 동동. 도산도방. 지평도예. 허브앤조이. 기운찬. 덕포식육점 감자이모. 한터식품. 한방굼벵이한굼. 하워짓커피랩. 하보리떡방. 제이엠그린. 아리아리떡사랑. 세미락. 모양맛김. 간식여왕. 강화까까. 고후나비 굴다리식품. 한우돌곱창. 한가람. 시장기름집. 유화컴퍼니. 메밀꽃이일다. 모이앤피. 버드윌리엄. 어반파머. 와이에이치디랩. 청년바른식. HIT 진한지flower. 초아틱. 프롬유. 라마당. 청산제과. 자연데코. 오르리어. 디모멘트. 대광수산맛김. 금메달. 해마루팜. 토미153. 달콤공장. 투테일스

대한민국 소상공인분들이 보다 쉽게 온라인 마켓에 진출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켓 입점 가이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 1강_ 온라인 진출 사전 준비편
· 2강_ 상품선정 및 촬영 편
· 3강_ 운영 및 관리 편

* 신한금융그룹 유튜브 또는 좌측의 QR코드를 통해 가이드 영상을 만나보세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신한AI 네오플럭스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품종 개발부터 등록까지 20년…초심 잃으면 못하죠”

‘사과 박사’ 권순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관

농업연구사로 사과연구소 발령 후 27년간 사과에만 매달려
“생산·수요자 위한 품종개발…문제극복 위해 영업사원 돼야”

“1998년 국산 사과 품종 ‘홍로’가 처음으로 개발됐고, 지금은 외국 품종들을 대신해 최고의 추석 사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산 품종 개발도 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 됐죠.”

‘사과 박사’로 통하는 권순일〈사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관과 1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3년 농업연구사로 처음 사과연구소에 발령받은 뒤 27년간 사과에만 매달렸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사과는 품종 개발에만 20년 이상이 걸렸다.

권 연구관은 “새로운 품종 개발을 시작해 품종을 등록하기까지 20년이 걸린다고 보면 된다”며 “오랜 기간이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정밀하게 조사하고 선발해야 좋은 품종을 선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농진청이 개발한 국산 품종은 모두 37개. 외래 품종을 도입해 국내 현실에 맞게 새롭게 육성했다. 첫 국산 홍로도 익는 시기를 우리 명절인 추석에 맞춰 개발한 것이다. 그는 “홍로 이전에는 스타킹, 골든딜리셔스, 세계일, 홍월 같은 외국 품종이 우리 사과 시장을 모두 선점하고 있었다”며 “홍로가 개발되고 나서 빨갛게 색이 잘 들고 맛도 좋은 사과를 차례상에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품종 개발도 이 같은 생산과 소비 환경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권 연구관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변화의 폭이 더욱 커졌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포장이나 작은 과일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고, 농촌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품종도 필요하다. 또 기온이 상승하면서 재배지가 변하는 것도 신품종 개발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는 “품종 개발에 있어 소비와 인구, 기온 변화와 더불어 국가 간 품종 개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맛과 저장성 등 우수한 품질을 기본으로 갖춘 다양한 품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농진청에서 개발해 재배 비율이 높아지는 품종들도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다. 크기가 탁구공 정도인 ‘루비에스’ 품종은 1인 가구 등에서 인기가 높다. 기존의 작은 사과는 일본 품종인 ‘알스프오토메’가 유일했다. 농진청은 저장성을 50일까지 늘리고 낙과율을 낮춘 루비에스를 개발해 품종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노동력을 줄이기 위한 품종으로는 ‘아리화’가 대표적이다. 사과는 100개 중 95개를 솎아내야 정상 수확이 가능하다. 가장 많이 재배하는 후지나 홍로는 약 10%의 열매를 떨구는 데 비해 아리화는 60%를 스스로 떨어뜨려 그만큼 일손을 줄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사과의 빨간색을 쉽게 만드는 ‘컬러플’, 한여름에 출하할 수 있어 기온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썸머프린스’, 조경용 꽃사과 ‘데코벨’ 등도 모두 우리 기술로 개발한 우수한 품종들이다.

신품종을 폭넓게 보급하는 것도 품종 개발 이후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다. 신품종을 개발했다고 해서 농가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특히 사과는 한번 시작하면 재배 기간이 길어 대체가 쉽지 않고, 또 인지도가 높지 않으면 그만큼 수익성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권 연구관은 “사과나무는 한번 심으면 짧게는 15년, 길게는 50년 이상도 재배할 수 있어 농가에서는 경제적 수령이 다 한 뒤에 교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여기에 시장 인지도가 낮으면 ‘잡사과’로 평가절하돼 가격이 낮게 책정되고, 몇 년이 지나면 농가가 새 품종을 베어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농진청은 새 품종을 생산하는 농가의 물량만 모아 유통으로 연결해주는 공동출하를 지원하고 있다. ‘생산자-품목협동조합-대형청과’를 연계하면서 시장 인지도가 낮은 신품종 과일의 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품종 개발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아쉬운 상황이다. 그는 “연구 개발 과정에서 한 품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까지는 적어도 5년 이상 관찰을 해야 하고, 1년에 한 지역만 관찰할 수 있어 여러 지역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년 이상이 걸린다”며 “그만큼 새 품종 보급이 더뎌질 수밖에 없고,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과 박사인 그의 생각은 확고하다. 품종 개발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품종 개발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권 연구관은 “사과 품종은 철저히 수요자 입장에서 평가해야 하고, 개발된 품종은 문제가 있으면 극복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영업사원이 돼야 한다”며 “90점짜리 품종도 10점을 채우지 못하면 실패한 품종이 되고, 10점짜리 품종도 90점을 보완하면 성공한 품종이 된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SK이노 후원 친환경 소셜벤처 ‘두바이 엑스포’ 수상기업 선정
상금 1억원…내년 엑스포 참가

SK이노베이션은자사가 후원하는 친환경 소셜벤처 ‘마린 이노베이션’이 ‘두바이 엑스포’ 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 ‘엑스포 라이브’ 중 하나인 ‘이노베이션 임팩트 그랜트 프로그램(Innovation Impact Grant Programme)’에서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최종 수상 기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회는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환경, 건강, 교육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자리다. 마린이노베이션은 해조류 부산물로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 이를 활용해 계란판, 종이컵, 봉투 등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4000여 개 스타트업 중에 23개 업체만이 최종 상금 수상 기업에 뽑혔다. 마린이노베이션은 상금 10만 달러(약 1억 원)를 받았다. 내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두바이 엑스포’에서 마린이노베이션의 친환경 제품들을 선보일 기회도 얻었다.

차완영〈사진〉 마린이노베이션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마린이노베이션 제품의 혁신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친환경 패키징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 소셜벤처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중견기업인의 날’ 산업훈장,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

산업포장엔 김상철 한컴 회장·남인봄 아이마켓 대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중견기업인의 날’은 2014년 중견기업법 시행을 기념해 매년 열리는 중견업계 최대 행사로 올해로 6번째를 맞았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업계 유공자 24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이사는 산업 훈장을, 김상철 한글과 컴퓨터 회장과 남인봄 아이마켓코리아 대표이사는 산업포장을 각각 수상했다. 이외에 중견기업 발전 공로를 인정받은 중견기업과 유관기관 임직원 32명은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부 행사로 열린 기업가 정신 포럼에서는 경영혁신과 도전정신으로 시스템반도체 소재부품기술 대표기업으로 성장한 네패스와 개방형 혁신으로 바이오신약 개발에 앞장서고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수출을 본격화한 휴온스글로벌의 혁신 사례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아울러 국내 최대 종합 아웃소싱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화에 공로가 큰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대표이사에게 ‘중견기업인 공로패’가 수여됐다.

강 회장은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금융기관, 기업 등 사회 전반의 ‘연대와 협력’ 노력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중견기업계는 ‘연대와 협력’에 바탕을 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정세균(왼쪽)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박진선(가운데) 샘표식품 대표이사에게 산업훈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농협이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한 농축산물 유통혁신을 추진한다. 18일 농협은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올바른 농축산물 유통혁신’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

농협은 앞서 4월 여인홍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협 올바른 유통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농협은 △스마트 농축산물 생산·유통 환경 조성 △도매사업 중심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 △도소매사업 온라인 중심 전환 △협동조합 정체성 부합 농축산물 판매확대 등 4가지 유통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인은 편하게 농사지어 제값 받고 팔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착한 가격’에 사는 올바른 유통구조를 만들겠다”며 “유통혁신 실행계획을 반드시 실천하여 농업인과 국민이 가장 원하는 농협의 모습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사진 뉴시스

머스크, 테슬라 S&P500 편입에 저커버그 제치고 세계 3위 부자로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사진〉 최고경영자(CEO)가 세계 3위 부자에 등극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미국 증시 벤치마크 S&P500지수에 다음 달 편입한다는 소식에 힘입어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억만장자순위에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를 제치고 3위에 올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머스크 재산은 하루 만에 76억 달러 늘어난 1097억 달러(121조 원)로, 1060억 달러인 저커버그를 제쳤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테슬라 주가가 올 들어 지금까지 428% 폭등하면서 머스크 재산은 822억 달러 증가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조용병 “신한 리딩금융 역사, 여성 리더들 함께했다”

‘쉬어로즈 컨퍼런스’ 올해 3기 프로그램에 67명 선발·육성

“신한이 리딩 금융그룹의 역사를 만들기까지의 모든 성장 과정에는 탁월한 역량을 갖춘 여성 리더들이 늘 함께했다.”

조용병〈사진〉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열린 ‘제 3회 신한 쉬어로즈 컨퍼런스(SHeroes Conference)’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 회장은 “그룹 내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리더로서의 능력을 발휘해 주길 바라며, 더불어 후배들에게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한금융은 2018년부터 그룹차원의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She와 Heroes 합성어)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첫 출범 이후 매년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높였다. 올해 신한 쉬어로즈 3기는 서울, 경기권을 넘어 지방까지 대상을 확대해 총 67명을 선발·육성했다. 코칭 리더십, 멘토링 활동, 인사이트 확대를 위한 아카데미 등 여성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조 회장을 비롯한 그룹 내 여성 부서장 이상 임직원과 중간 관리자급 여성 리더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한 쉬어로즈 3기의 한 해 동안 활동을 발표하는 자리인 이번 콘퍼런스는 연간 활동 내용 발표, 특별 강연, 여성 리더십에 대한 패널 토의, 그룹 여성 멘토 임명식 순으로 진행됐다.

‘새 시대의 여성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국민대 고현숙 교수와 함께 진행한 패널토의에서는 여성리더만의 강점을 통해 리더십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 교수는 “여성 리더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주도하는 신한만의 여성 리더 육성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며 지속적으로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인사

◆미디어펜 △마케팅부장 겸 인사팀장 이해성

부음

▲이정형(전 효성 전무) 씨 별세, 허혜창 씨 남편상, 이수영(호남대 초빙교수)·재영(엔씨소프트)·진영 씨 부친상, 이정우(주영국 한국문화원장)·노일호(원익아이피에스 부장) 씨 장인상, 이둘순 씨 시부상 = 1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20일 오전 5시, 02-3410-6915

자본시장 속으로

감사위원 바라보기

김 호 준
대신지배구조연구소장

감사위원의 경우 직무상 그 엄격한 객관성 요구로 인해 '다른 위원회와는 분리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다. 실제로 대기업들 주총 안건에서 감사위원장이 이사회 의장까지 겸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역할상으로는 견제와 집행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상정 예정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그래서 반갑다.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단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관련 이슈이다. 이사회가 집행 기능과 감독 기능으로 분리된 독일과 달리, 한국의 이사회 내 이사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 설치되므로 감사위원도 이사회의 일원이고 원리적으로는 '집행기관의 일부'이지만, 다른 이사회와는 별개로 '견제와 감독'을 고유 기능으로 하므로 다른 사외이사들에 비해 '회사 또는 지배주주와의 이해관계'로부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요건이 더 크게 요구되고 그만큼 안건의 중요성과 민감도가 크다.

상법상 이사회 내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정관'에 규정해 설치하는데, 일반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위원회는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무엇보다 독립성이 가장 크게 요구되므로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막상 주총에 들어가면 민감해지는 이슈는 지금부터다. 현행법상 감사나 감사위원은 회사나 지배 주주에게서 강력한 독립성이 요구되므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최대주주의 지분이 많은 회사이거나 기관투자자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족수 미달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소위 '3%룰'이다. 이때 실무자들을 포함해 많은 이해관계자를 다소 헷갈리게 하는 법규정이 바로 '개별 3% vs 합산 3%' 룰이다. 그런데 원리를 따지고 보면 쉽다. 감사위원 중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독립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합산 3%'로 제한된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에 집행뿐 아니라 견제도 포함되므로 '개별 3%'까지 완화된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려면 사외이사를 모두 자기편(?)으로 선임하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중 최소 1명'은 반드시 다른 이사와 '분리선임'하도록 하고,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도 같은 내용이 편입되어 통과 시 일반 회사도 적용된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추천한 감사위원의 과도한 간섭 문제를 우려하는 재계 입장에서는 "왜 똑같은 이사를 분리선임하나?", 반대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가 우려되는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왜 1명밖에 안 하나?" 등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상법 개정안에서는 상장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 '사외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하여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일원화'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 효과를 보자. 일반적으로 상법상 이사회는 내부에 설치된 위원회 결의 사항을 재결의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 결의 사항은 그렇지 않다. 강력한 영향력으로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보면 의문이 생기는 사례들이 있다. 감사위원의 경우 직무상 그 엄격한 객관성 요구로 인해 '다른 위원회와는 분리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다. 실제로 대기업들 주총 안건에서 감사위원장이 이사회 의장까지 겸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역할상으로는 견제와 집행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상정 예정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그래서 반갑다. 감사위원에게 '보수위원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외에 타 위원회 겸직 제한'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사회 내 다른 위원회에서도 회사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는 정체성이 선명해진다.

최근 사모펀드와 국책기관의 관여 활동이 급증하는 추세 관련해 정리되지 않은 이슈도 있다. 국책은행이나 사모펀드에서 기업에 출자하고 이사를 직접 파견하여 경영에 관여하고자 할 때, 지배주주이므로 원리상 사내이사를 파견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보면 사내이사나 기타 비상무이사뿐 아니라 사외이사를 파견하거나 때로는 한두 단계(쿠션)를 거쳐 이해관계자를 감사위원으로 파견하기도 한다. 자본시장법상에는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임원'의 임면이라고 다소 모호하게 정의됐다. 독립성 차원에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 지배구조 이슈는 법이 가장 기본이다. 이후 이론적 타당성과 경영상의 현실을 판단한다. 현실은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대립한다. 감사위원 역시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CEO 칼럼

코로나 시대 도시부동산의 뉴노멀

최 민 성
델코리얼티그룹 회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번 달 초순까지 전 세계적으로 5320만 명이 감염됐고 사망자는 130만 명이 넘었다.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고통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20세기에도 필적할 만한 글로벌 사건들이 있었다. 1918~1920년 스페인 독감(5000만 명 이상 사망) 이후 질병으로는 102년 만에 나타난 코로나19가 기존의 도시부동산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부동산 연구단체인 ULI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이머징 트렌드 2021' 리포트에서 이런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오피스, 리테일, 아파트, 호텔, 스포츠, 엔터테인 시설 등)은 코로나 확산 잠재력이 있는 장소로 지목받고 있다. 각국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코로나 통제는 어렵기만 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적자는 커지고, 적절한 가격의 주택공급과 불평등 우려는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도심과 고밀도에 대한 매력이 줄고, 대중교통 이용, 대면 콘퍼런스와 모임, 매장 방문, 관광이나 비즈니스 여행, 관광객 대상 리테일 등이 위축되고 있다. 아파트의 어메니티 시설 이용이 줄고, 라이브 엔터테인, 대학가와 학생 기숙사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지자 도시 외곽의 세컨드하우스나 부모, 친척집 등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일부 회사도 작은 도시나 교외로 이전하고 있다. 시민들이 그동안 인기 있던 도시에서 매력을 덜 느끼면서, 고밀도의 대중교통, 오피스, 쇼핑 엔터테인 라이브 시설 등의 이용을 줄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관련 도시산업은 타격을 입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한국도 6개 도시의 올해 1~8월 지하철 이용 인구가 전년보다 29% 줄었다.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진행되는 트렌드도 있다. 미국의 경우 재택근무 확산, 대도시 외곽이나 휴양 도시로의 이주, 다중이용 공간과 빌딩의 건강 지킴, 온라인 쇼핑과 물류, 건강 중시하는 프롭테크,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이용 등이 증가하고 있다. 물류시설과 데이터 센터도 번창하고 있다. 도시가 질병에서 시민을 지켜내고 활기를 찾아가면 도시 라이프스타일의 선호는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스턴, LA, 뉴욕, 샌프란스시코, 워싱턴 같은 국제 관문 도시들은 엔터테인, 금융, 기술, 교육, 그린 공간, 바깥 활동 등에서 압도적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시대에 재난 물류는 민간 유통기업이 담당하면서 안정됐다. 코로나 확산 초기에는 전 세계에서 생필품 사재기가 급증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미국은 아마존 물류망이 제 역할을 하면서 안정화됐다. 우리도 쿠팡,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업체와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 CU 같은 편의점 등 기존의 유통기업 생필품 공급망 덕분에 사재기 현상이 없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온라인 쇼핑 비중은 전체 소매판매액 대비 27.8%나 된다. 2018년 19.3%, 2019년 21.4%에 비해 비중이 엄청 높아졌다. 같은 기간 문화와 레저 수요는 -68.8%, 여행과 교통은 -53.4%를 기록했다.

코로나로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다. 대학은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 고민인데 코로나로 걱정이 더 늘었다. 비대면 교육 콘텐츠가 강화되면서 10년 안에 전 세계 대학 절반 이상이 사라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로 인해 이미 기존에 진행 중인 트렌드 중에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비효율을 줄이고 합리성을 중시하는 회복력이 뉴노멀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그동안의 낭비 요소와 불합리를 털어내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기자수첩

'자만추'와 사모펀드

나 경 연 금융부/contest@

요즘 대세는 '자만추'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 혹은 성향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인위적인 소개팅이 싫다는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다. 이런 대세의 흐름 때문인지 주변에 부쩍 직장인 취미 앱에 가입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 가장 인기 있는 앱 투 톱은 '소모임'과 '2교시'다(광고 절대 아님). 최근 2교시 앱의 독서 모임에 가입한 친구에게 참석 후기를 들었다. 어김없이 첫날에는 자기소개가 이어졌다.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처럼 어색한 분위기는 똑같지만 달라진 점은 참가비 수준과 밝혀야 하는 내 사회적 위치다. 본인 차례가 오면 현재 다니는 정확한 직장명은 물론 부서와 직급까지 말해야 하는데, 앞의 사람들이 모두 그리하니 차례가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밝히게 된다는 것.

얘기를 듣다보니 이게 자만추인가 싶었다. 오히려 소개팅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수준이었다. 직장명만 물어봐도 자칫 실례가 될 수 있는 소개팅에 반해 여기는 본인이 알아서 직급까지 말해주니 웬만한 결혼정보업체보다 효율적인 선자리가 아닐 수 없다. 모임에 다녀온 친구는 오히려 이를 장점으로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정보를 밝히니 모임에 이상한 사람이 참석하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나.

최근 환매 유예된 영국 신재생에너지 펀드를 취재하다가 운용사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 실소가 터졌다. 단순 취미 앱에 가입해도 다 밝혀야 하는 세상인데 수천억 원을 투자해 발전소를 짓는다는 설명 아래에는 그곳이 영국인지 강원도 논밭인지 모를 허허벌판 사진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구체적인 주소는커녕 현지 담당자 연락처조차 명시돼 있지 않았다. 라임과 옵티머스의 부실한 실사보고서를 보고 있는 듯한 기시감이 들었다.

동호회 앱이 자만추인지 소개팅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왜 가입했는지는 본인만 알 수 있다. 확실한 것은 다 밝혀야 부작용이 없다는 것. 다 밝혀서 비상식적인 참가자는 모임에 끼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 자만추와 사모펀드의 공통점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인디라 간디 명언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악수를 할 수 없다."

인도의 초대 총리 J.네루의 무남독녀로 F.간디의 부인이다. 총리에 취임한 그녀는 경제안정에 힘썼으나 강권정치를 편다는 야당의 공격으로 총선에서 패배해 한때 정계를 떠났다. 인민당이 우유부단한 정책으로 국민의 신임을 잃자 총선에서 승리해 총리에 복귀했지만 시크교도 경호원에게 암살당했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 1917~1984.

☆ 고사성어 / 조이불망(釣而不網)

'낚시질은 해도 그물질은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공자(孔子)의 성품을 표현한 말. "공자는 낚시질은 하되 그물질은 하지 않았으며, 사냥을 하되 둥우리에 깃든 새는 쏘아 맞히지 않았다[子釣而不網 弋不射宿]." 출전 논어(論語) 술이편(述而篇).

☆ 시사상식 / 스파이 앱(Spy App)

사용자들의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음성 녹음을 통한 도·감청 기능까지 갖춘 앱을 일컫는 말이다. 스파이 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 이 앱은 깔리는 순간 해커가 사용자의 문자메시지를 중간에서 가로채 볼 수 있는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탈취하는 악성 앱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문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철쭉

한자어 척촉(躑躅)이 변한 말.

☆ 유머 / 취중진담의 힘

술 취한 남편이 밤늦게 집에 들어와 바닥에 토하고 마루에 벌러덩 누워버렸다. 이튿날 아침 남편은 아내가 두려웠다. 무조건 빌기로 했다. 남편은 탁자 위 아내 메모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북엇국 끓여 놓았어요. 마트 다녀올게요. 이따 봐요. 사랑해!'

아들을 불러 "어젯밤 뭔 일 있었니?"라고 물었다. 아들의 대답. "엄마가 아빠를 침대에 눕히고 셔츠를 벗기려고 하니깐 아빠가 '저기요, 나 혼자 냅두세요. 나 결혼한 남자거든요'라고 말씀하셨대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주필 추창근 | 편집국장 김종훈

논설실 (02)799-2669
자본시장부 (02)799-2648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정치경제부 (02)799-2663
금융부 (02)799-2665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사회경제부 (02)799-2612
부동산부 (02)799-2637
뉴스랩부 (02)799-2664
국제경제부 (02)799-6741
산업부 (02)799-2644
사진팀 (02)799-6745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명나라의 탐관, 유근(劉瑾)

암군을 등에 업고 천하의 뇌물을 취하다

〈暗君〉

유근(劉瑾; 1451-1510)은 명나라 정덕제(正德帝) 무종(武宗) 때의 환관이다. 그는 섬서성(陝西省)에서 태어나 여섯 살 때 궁중 태감에게 맡겨져 자랐다. 그는 장성하면서 점점 지위가 높아졌고, 효종 때 태감으로 올라 태자를 모시게 되었다. 1505년 효종이 세상을 떠나자 태자가 제위를 이으니 그가 곧 무종이었다. 유근은 당시 10여 세에 불과한 이 어린 황제를 모시면서 국정을 제 마음대로 농단하기 시작하였다.

환관의 세상… '팔호'의 우두머리

이 무렵 유근을 비롯하여 마영성(馬永成), 고봉(高鳳) 등 일곱 명의 태감은 무종의 총애를 받아 '팔호(八虎)'라고 불렸다. 그리고 유근은 이 '팔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우두머리였다. 이들은 경성(京城)의 정예 수비대까지 한손에 장악하면서 전권(專權)을 휘둘렀다. 반면 조정의 다른 대신들은 조정 업무에서 모두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그러자 대신들은 잇달아 간언을 올렸고, 마침내 무종도 마음이 움직여 유근을 멀리 강남으로 유배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대신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기회에 화근덩어리인 유근을 처형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모든 대신들이 다음 날 함께 모여 황제에게 유근을 죽이라고 간언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서 있는 황제'와 '앉아 있는 황제'

하지만 이부상서였던 초방(焦芳)이 밤에 유근을 찾아가 그 계획을 폭로하였다. 크게 놀란 유근은 다른 일곱 태감들과 함께 황제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였다. 아둔하고 마음이 여렸던 무종은 유근이 이제까지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것을 생각하여 그들을 사면하였다. 그러면서 그에게 사례감(司禮監) 직책을 주었다.

그런데 이 사례감이라는 벼슬자리는 매우 중요한 내궁 관서였다. 명나라 때 백관이 황제에게 상서를 하게 되면 먼저 내각에 보내져 내각 대신들이 의견 처리를 한 다음 황제에게 올려졌다. 그 뒤 황제가 빨간색의 붓으로 재가하는데, 명나라 황제들은 거의 대부분 무능하고 게을렀다. 그래서 대부분의 황제들은 정무가 귀찮아 사례감에게 대필하도록 해 사례감은 자기 마음껏 국정을 농단할 수 있었다.

게다가 사례감은 황제의 뜻을 조정 백관들에게 하달하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그가 황제 대신 대필을 하고 이를 내각으로 하여금 기초하게 하거나 혹은 관련된 대신들에게 구두로 황제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 제도는 환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황제의 뜻을 왜곡시킬 수 있었다. 사례감의 주관(主管)이었던 유근의 전횡과 발호는 바로 이 제도에 힘입은 바 컸다.

아니나 다를까. 유근은 전권을 손에 넣자 자신을 반대하던 대신들을 모조리 숙청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유근을 '서 있는 황제(立皇帝)'라고 불렀고, 반면 황제 무종은 '앉아 있는 황제(坐皇帝)'라 하였다. 유근은 사냥매로 토끼 사냥을 하는 등 놀기 좋아하는 무종으로 하여금 공놀이나 말 타기 그리고 매사냥에 심취하게 만들고, 일부러 가장 놀이에 흥이 겨워질 때를 기다려 정사를 청하였다. 그러면 무종은 크게 짜증을 내면서 "왜 모든 일마다 나를 찾느냐? 너희들은 놀고만 지내느냐?"라고 말했다. 유근은 몹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갔으나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명나라 4대 암군(暗君) 중 하나인 정덕제(正德帝) 무종(武宗·왼쪽) 때의 환관으로 전권을 장악해 국정을 농단하고 재물을 취한 유근(劉瑾·오른쪽). 사진출처/위키·바이두백과

국정농단 '당동벌이'로 이어져

그렇게 하여 국정은 모조리 그의 수중에 넘어왔다. 각지의 관리들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모두 반드시 그에게 뇌물을 바쳐야 했다. 이름하여 '접견의 예(禮)'였다. 뇌물은 바쳤다 하면 백은 천 냥이었고, 때로는 오천 냥에 이르기도 했다. 관리들이 돈이 부족하여 서울 부호에게 빌려서 뇌물을 바친다고 해서 '경채(京債)'라고 칭해지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근은 특무 비밀조직인 내행장(內行場)을 설치하여 나라의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을 철저하고 내밀하게 감시, 탄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이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전권을 행사하였다. 국정은 온통 혼동에 빠졌고, 모두들 자기 목숨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당파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이 무렵 "자기와 입장과 의견이 같은 무리는 편들고, 자기 편이 아니면 공격하다"는 '당동벌이(黨同伐異)'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

유근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주무른 국정농단은 조정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였다. 천하의 모든 뇌물을 독점하고자 하는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조정을 크게 동요시키고 끝내 파탄을 초래하였다. 관리들이 그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치려면 백성들을 혹독하게 착취해야 했기 때문에 궁지에 몰린 백성들은 결국 무리를 지어 전국 도처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3357차례 칼질 '능지처참' 당해

1510년, 무능하기 짝이 없던 '암군(暗君)' 무종의 귀에도 마침내 유근의 죄상이 들리게 되었다. 크게 놀란 무종이 직접 유근의 집을 수색하니 놀랍게도 가짜 옥새(玉璽)와 옥대(玉帶)까지 나왔다. 심지어 유근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던 부채 속에서는 두 자루의 비수가 나왔다. 무종은 대노했다. 그리고 당장 그를 체포하도록 하였다.

그는 '능지처참(陵遲處斬)'되었다. '능지처참'이란 사형당하는 사람의 육체를 예리한 칼로 수없이 도려내 천천히 무수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도록 하는 극형이다. 특히 유근에게 내려졌던 능지처참은 무려 3357차례 칼로 온몸을 도려내는 극형 중의 극형이었다. 처음에 가슴부터 10차례 칼을 대는 '10도(刀)'부터 시작되었고, 그가 혼절할 것을 대비해 그가 깨어나면 다시 칼을 댔다. 이렇게 하여 이틀째 되던 날 그는 숨졌다. 그가 숨진 후에도 극형은 계속 이어져 3357차례 칼질을 했다.

WSJ, 20세기 세계 부호 50인에

2001년 월스트리트저널은 근현대 1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0인을 선정했는데, 유근이 그중에 포함되었다. 뇌물로 이룬 유근의 재산은 무려 황금 1205만 냥과 백은 2억5000만 냥에 이르렀다. 이는 당시 명나라 조정의 국고 수입의 열 배도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하지만 유근의 엄청났던 재산도 그의 비참한 최후를 결코 막을 수 없었다. 아니 그 엄청난 재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는 참담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그는 천하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천하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야 했다.

사설

환율 1100원 위협, 저환율 리스크 대비 급하다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 추세(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달러당 원화 환율은 지난 16일 1109.3원으로 23개월 만에 1100원대로 내려앉았다.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17일에도 1106.6원으로 전거래일보다 2.7원, 18일은 1103.8원으로 2.8원 더 떨어졌다. 2018년 6월 15일(1097.7원) 이후 최저치다. 환율 하락은 최근 가파른 양상이다. 올해 최고치였던 3월 19일의 1285.7원에 비교하면 8개월 동안 14%나 낮아진 것이다.

원화 가치가 이처럼 치솟고 있는 것은 세계 경제의 불안이 완화하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올 전망이고, 중국과의 무역분쟁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 등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진전되고 있는 것 또한 불확실성을 줄였다.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량의 순매수를 이어가는 것도 원화 강세 요인이다. 외국인들이 11월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사들인 주식은 4조8000억 원 규모다.

앞으로도 환율은 더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지속적인 원화 강세 압력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1100원이 곧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경기 반등으로 위안화도 빠르게 절상되는 추세다. 우리 원화는 중국 위안화에 동조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당장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도 비상이다. 겨우 숨통을 틔우고 있는 수출에 찬물을 끼얹는다. 한국 경제의 과거 환율의존 구조가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급격한 원화 강세가 가져올 피해는 여전히 크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수출이 줄고, 수출에 주력하는 기업일수록 수익성과 실적이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해외판매 비중이 80% 이상인 현대·기아차만 해도 환율이 10원 내릴 때 매출 감소가 2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수주 산업인 조선,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 정유업계 등도 비상이 걸렸다. 환율 영향은 중소기업이 더 크게 받는다. 대기업은 환헤지 능력이라도 있고 결제통화 다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부분에서 매우 취약하다.

환율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환율 문제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성장의 견인차인 수출에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수출기업 지원 방안이 긴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추세적인 저환율 시대에 대비해 우리 경제를 내수 주도의 체질로 바꿔나가는 것이 당면한 과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화가 퇴조하고 교역환경도 나빠질 공산도 크다. 빨리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기반을 키워 환율 리스크를 줄이는 구조개편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대로 된 밑그림과 적극적인 실행 대책이 나와야 한다.

한 컷

거리두기 격상에 걱정 커진 자영업자들

'그동안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서울의 한 거리 음식점 앞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 0시를 기해 1.5단계로 강화됐다. 조금씩 활기를 되찾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또다시 커다란 시련이 닥쳐오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알면 알수록 타면 탈수록

자동차 금융도 역시 KB

구매는 더 부담 없게
우대금리 적금과 여유로운 대출한도로 구입자금을 더 쉽고 빠르게 모아요

거래는 더 안심되게
인공지능기술로 정확한 중고차의 시세를 확인해요

운전은 더 안전하게
안전주행하고 보험료도 할인받아요

생활은 더 알뜰하게
주유, 정비 등 다양한 카드 할인 혜택을 누려요

KB국민은행 | KB손해보험 | KB국민카드 | KB캐피탈

KB증권 | 푸르덴셜생명 | KB자산운용 | KB생명보험 | KB부동산신탁 | KB저축은행 | KB인베스트먼트 | KB데이타시스템 | KB신용정보

KB금융그룹